creative commons

COMMONS DEED

저작자표시-비영리-변경금지 2.0 대한민국

이용자는 아래의 조건을 따르는 경우에 한하여 자유롭게

- 이 저작물을 복제, 배포, 전송, 전시, 공연 및 방송할 수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조건을 따라야 합니다:

저작자표시. 귀하는 원저작자를 표시하여야 합니다.

비영리. 귀하는 이 저작물을 영리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습니다.

변경금지. 귀하는 이 저작물을 개작, 변형 또는 가공할 수 없습니다.

- 귀하는, 이 저작물의 재이용이나 배포의 경우, 이 저작물에 적용된 이용허락조건을 명확하게 나타내어야 합니다.
- 저작권자로부터 별도의 허가를 받으면 이러한 조건들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저작권법에 따른 이용자의 권리는 위의 내용에 의하여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이것은 이용허락규약(Legal Code)을 이해하기 쉽게 요약한 것입니다.

Disclaimer

dCollection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문

소설단원 '학습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 9학년 소설을 중심으로 -

2008 년 8 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정 나 연

교 육 학 석 사 학 위 논문

소설단원 '학습활동'의 개선방안 연구
- 9학년 소설을 중심으로 -

지도교수 : 김 남 석

이 논문을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으로 제출함.

2008 년 8 월

부경대학교 교육대학원

국어교육전공

정 나 연

정나연의 교육학석사 학위논문을 인준함.

2008년 8월 27일

주 심 문학박사 송 명 희 (인)

위 원 문학박사 남 송 우 (인)

위 원 문학박사 김 남 석 (인)

목 차

Ⅰ. 서론 1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1
2. 선행연구 검토 3
3. 연구대상 및 방법 9
3.1. 연구대상 9
3.2. 연구방법 10

Ⅱ. 제 7차 교육과정 소설 단원의 교수 목표와 지도 내용 ... 16
1. 국어과 목표에 따른 소설교육의 성격과 목표 16
2. 소설 교육의 내용 및 지도내용 17

Ⅲ. 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설 단원의 '학습활동' 분석 24
1. 국어교과서의 내용 체계 및 구성 24
2. '학습활동'의 성격과 구성 26
2.1. 학습활동의 성격과 범위 26
2.2. 학습활동의 기능 33
3. 단원별 소설 제재 및 학습 활동 분석 34
3.1. 독서와 사회 - <원미동사람들> 34
3.2. 한국현대문학의 이해 - <운수좋은날> 51
3.3. 고전문학의 감상 -<박씨전> 65
4. 9학년 소설 단원 '학습활동'의 문제점 80

Ⅳ. '학습활동'의 개선방안 89
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검토 89
2. 문항 분석 및 개정 교육과정 고찰을 통한 '학습활동'의 개선방안 ... 92

Ⅴ. 결론 96

※참고문헌 100

보기 목차

<보기-1> '학습활동' 문항 분석의 기준 15
<보기-2> 제 7차 교육과정 내 국어과의 교육 목표 17
<보기-3> 소설 교육의 목표 18
<보기-4> 교육과정 내 문학지도 내용 22
<보기-5> '목표학습' 의 예 30
<보기-6> '적용학습' 의 예 31
<보기-7> '보충·심화' 활동의 예 33
<보기-8> 전 학년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 34
<보기-9> 교육과정의 내용 35
<보기-10> 대단원의 학습목표 35
<보기-11> 읽기 전 활동 41
<보기-12> 학습 후 활동 42
<보기-13> '목표학습'의 활동 44
<보기-14> '자기점검' 문항 47
<보기-15> 전 학년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 52
<보기-16> 교육과정의 내용 52
<보기-17> 대단원의 학습목표 53
<보기-18> '읽기 전 활동' 59
<보기-19> '목표학습'의 활동 62
<보기-20> 전 학년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 66
<보기-21> 교육과정의 내용 66
<보기-22> 대단원의 학습 목표 67
<보기-23> 7차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향 69
<보기-24> '읽기 전 활동'의 자료 72
<보기-25> '읽기 중 활동' 73
<보기-26> 문항 분석의 기준 97

표 목차

<표-1> 문학의 내용 체계 20
<표-2> 중학교 국어 교과서 3학년 <문학>단원의 구성 23
<표-3> 1-1 국어교과서의 단원별 영역 배정 25
<표-4> 단원 전-중-후의 '학습활동' 문항 37
<표-5> 단원 전-중-후의 '학습활동' 문항 54
<표-6> 단원 전-중-후의 '학습활동' 문항 68

그림 목차

<그림-1>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도 26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Research for Improving novel grade unit 'studying activity'
- Focusing on textbooks for year 9 -

Na Yoen Jung

Graduate School of Education
Pukyong National University

Abstract

'Studying activity' is a specific activity material which reflects the process-centered, activity-centered, and students-centered spirit that is the main characteristic of the 7th curriculum. It is also an important component of textbooks to meet the goal of 'improving the ability of using Korean language'. This study i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studying activity' in middle school Korean language textbooks. The ultimate goal is finding out how to improve 'studying activity' through investigating the "2007 modified 7th curriculum"

The Ⅰ part(introduction) deals with the necessity and aims of this study, examination of the preceeding study, the object and the method of this study. The Ⅱ part covers the aims and features of novel education in 7th curriculum. This part also involves the contents of novel units and some characteristics that must be included in the activities. The Ⅲ part embodies 'studying activity' in middle school textbooks on a full scale. The objects of study are 3 novels(「원미동 사람들」, 「운수 좋은 날」, 「박씨전」) of the 9th grade. I analyzed the activities based on six standards. These standards were selected based on educational components. That can be applied to 'studying activity'.
The Ⅳ part suggests the way to improve 'studying activity' through investigating the problems raised in the Ⅲ part and examining the "2007 modified 7th curriculum". And I finished this study by adjusting the contents.

As previously stated, ‘studying activity’ is a good component of the textbooks which reflects the goal of 'improving the ability of using Korean language' even though ‘studying activity’ has some problems and should be improved. The Ministry of Education and Human Resources Development notified the "2007 modified 7th curriculum" in February 2007 and the new textbooks will be published. It will be a valuable study for the revision of the textbooks and curriculum to discuss composition of textbooks, the things that should be continued in students' activities, and the things that should be modified through the analysis of ‘studying activity’.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본 연구의 목적은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단원의 '학습활동'을 분석하여 문제점 및 개선방안을 논의하는 데 있다. '학습활동'이 교육과정의 내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영역과 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보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발견된 문제점을 정리하고,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의 검토를 통해 '학습활동'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본고의 최종적인 목적으로 한다.

소설은 인물들의 관계를 통해 사회 속에서 살아가는 모습을 구체적으로 제시하는 장르이다. 즉 소설은 인간의 삶, 특히 사회적 존재로서 인간의 삶을 구체적으로 그려내는 것이다. 따라서 소설 교육의 궁극적 목표는 소설 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소설 교육은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증진시키고, 문학적 체험이 실제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자기 성찰과 새로운 자기 형성을 함양하는 것이 될 필요가 있다.[1] 이러한 소설교육의 목적을 가장 잘 실현하고 있어야 하는 것이 바로 국어교과서이다.

교과서는 교육과정에 따라 학교에서 가르쳐야 할 교육내용을 학생수준에 맞게 선정 조직하고 제시한 내용의 제공서이며 해설서이다. 또한 교과서는

1) 선주원,『소설 교육의 원리와 방법』, 새미, 2003, 3면.

학교 교수·학습의 가장 중심이 되는 자료이다. 그러므로 교과서에는 교육이념과 목적이 들어 있고, 각 교과의 목표를 구현하기 위한 교육내용과 방법이 구체화되어 있어야 하는데 교과서의 구성에서 이러한 부분을 가장 실천적인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이 '학습활동'이다.

'학습활동'은 제 7차 교육과정의 큰 특징이라 할 수 있는 과정중심, 활동중심, 학습자중심의 정신을 잘 반영한 교수-학습의 구체적인 활동제시자료로서 국어과 목표의 핵심인 '창의적인 국어사용 능력향상'을 위한 중요한 교과서의 구성요소이다. 소설교육은 학생들로 하여금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감상자가 되어 각자의 심성에 따라 다양한 해석과 정서적 반응을 경험해야 하는데, '학습활동'은 바로 이러한 소설교육의 목표를 위한 가장 실제적이고 활동 가능한 문항인 것이다. 교과서에서는 추상적이고 일반적으로 진술된 교육과정 내용을 학생의 수준에 맞게 선정, 조직하고 구체적인 자료로 제시한다. 학생은 이를 통해 학습하고 '학습활동'을 통해 읽은 자료를 얼마나 잘 이해했는지를 점검하고, 평가도 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필요한 지도도 받을 수 있다. 국어사용능력은 문학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고 해서 질적으로 향상되지 않는다. '학습활동'과 같이 학습자가 주체적이고 능동적인 활동을 실천할 수 있는 주된 자료가 필요하다. 교사에게는 학생이 최종적으로 이러한 '학습활동'을 잘 수행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교수의 기준과 중심내용이 될 수 있다.

이렇듯 교과서의 구성과 교수학습에 중요한 역할을 하는 '학습활동'을 연구하는 일은 교과서의 보다 효과적인 내용구성과 학습자의 이해와 활동을 돕기 위해 가치 있는 작업이다. 또한 교육인적자원부에 의해 2007년 2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되었고 이에 따른 새로운 교과서의 출판을 앞두고 있기 때문에 '학습활동'의 분석을 통해 교과서의 구성 및 학습자 활동의 전반에 걸쳐 지속시켜 나가야할 점, 개선해야 할 점을 논의하

는 것은 앞으로의 발전된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개정을 위해 가치 있는 연구가 될 것이다.

2. 선행 연구 검토

1981년 4차 교육과정에 들어서부터 중요성이 인식되었던 소설교육은 국어과에서 문학 교육이 독자적인 영역을 차지하게 되면서 보다 활발히 발전했다.[2] 문학교육에 대한 논의도 다양하다. 하지만 소설교육에 대한 논의 역시 소설연구의 목적, 실제 수업에서 지도방법, 소설의 평가 방법, 소설의 다양한 이론 등 다양한 연구들이 존재한다. 소설교육의 연구방향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문학교육의 전반적인 이론을 체계적으로 정립하려는 초기 시도이다. 문학의 본질적인 의미를 추구하면서 소설교육 전반에 걸친 이론 및 기본관점을 제시하려는 논의이다. 구인환,[3] 김대행,[4] 김윤식,[5] 김인환[6] 등이 문학교육의 전반적인 이론들을 체계적으로 정립하고 문학의 본질탐구를 통해 소설교육의 이론적 관점을 제시하려고 하였다. 구인환 외 공저『문학교육론』에서는 문학 교육 중 소설의 장르적 특성을 염두 해 두고 그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소설 수업을 위한 교수·학습 모형을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들은 소설교육의 이론적 바탕을 마련해 주는 의의가 있다. 하지만

2) 김은전,「국어교육과 문학교육」,『사대논총』, 제19집, 1979, 158면.

3) 구인환,『문학교육론』, 삼지원, 2000.

4) 김대행,『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사상사, 1992.

5) 김윤식,『한국 근대문학과 문학교육』, 을유문고, 1984.

6) 김인환,『문학교육』, 평민서림, 1979.

소설교육의 실제적인 교수·학습적인 면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에까지 이르지 못했다는 한계를 가진다.

둘째, 최근 가장 활성화되고 있는 논의로서 소설교육의 원리와 방법론적 측면에 관한 연구이다. 김상욱[7], 선주원[8], 이상우[9], 김미영[10] 등은 소설교육의 목표에 바탕을 두고서 학교 현장에 적합하면서도 학습자의 문학능력을 풍부하게 하기 위해 소설을 어떻게 지도할 것인가를 논의했다. 이들은 시대와 장소, 이야기 구조의 이해와 매체관련성에 대한 지도의 필요성과 지도방법을 연구했다. 이와 관련해 박애련[11], 김덕희[12], 유지연[13], 조은희[14], 구양희[15] 등 많은 석사학위 논문들은 지식기반사회의 매체발달의 측면에서 소설교육의 방법을 연구한 석사학위 논문들이다. 이러한 연구들은 다양한 소설교육방법을 제시하여 소설교육의 이론화와 다양한 교수방법에 대한 가능성을 열어 주었다. 그러나 실제 수업현장에 적용하기 위한 객관적인 검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한계를 지닌다.

셋째, 실제 교육현장을 중심으로 한 문학 교육 현황에 대한 비판 및 개선방향에 대한 연구이다. 이는 소설고유의 방법론적 측면과 어느 정도 상호관련성이 있는 부분으로 효과적인 지도방안의 모색과 수업모형을 제시하

---

7) 김상욱, 『소설교육의 방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8) 선주원, 『소설교육의 원리와 방법』, 새미, 2005.

9) 이상우, 『소설방법론을 통한 소설교육』, 집문당, 1999.

10) 김미영, 『문학교육과 현대소설』, 깊은 샘, 2005.

11) 박애련,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교육연구」,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6.

12) 김덕희, 「영상매체 활용수업이 소설 감상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3.

13) 유지연, 「매체를 이용한 소설교수방법 연구」, 청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3.

14) 조은희, 「문학교육의 매체활용방법연구」, 공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2.

15) 구양희, 「국어과 교육에서의 인터넷 매체활용방법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2002.

는 논의들이다. 구인환은『문학 교수학습·방법론』에서 문학의 갈래별로 이상적인 교수·학습 방법론을 제시하였다. 또한 소설 제재의 수업 모형을 5단계로 나누어 단계별로 구체적인 지도방법을 제시하였고 이 중 문학교사가 담당해야 할 점을 강조하였다.

이와 비슷한 관점으로 손소희[16], 이순자[17], 예주연[18]등의 논의를 들 수 있다. 손소희와 예주연은 제 4차와 5차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수록된 소설의 현황을 분석했다. 설문 조사를 통해 소설 교육의 실태를 보고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는 연구였다. 이밖에 교과서에 실린 제재에 대한 논의도 활발히 진행되어 왔는데 홍성룡[19], 안혜정[20], 이숙형[21],등의 연구를 들 수 있다. 교과서의 소설단원의 학습내용은 이와 같이 다양한 문학교육과 소설교육에 관한 기존논의를 바탕으로 했다. 즉 기존의 연구들이 실제적인 교육에 지침으로 거듭난 것이 '학습활동' 인 것이다. 다양한 논의 중 교실에서 지도와 학습의 실제 '학습활동'을 연구한 논문은 다음과 같다.

이숙형은 교과서에 실린 소설 제재 선정의 타당성 검토와 함께 '학습활동'을 분석하고 있다. 김정수는 1학년 전체와 2학년 1학기의 중학교 교과서 내 11편의 소설과 '학습활동' 문항에 대한 분석을 통해 본래 소설교육이 기대하는 목표가 이루어질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려고 했다. 현행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에 부합하는지를 분석의 기준으로 삼았다. 중학교 국어

---

16) 손소희,「중학교 소설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85.

17) 이순자,「소설교육의 실제와 문제점」,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1986.

18) 예주연,「중학교 소설교육의 실태와 올바른 시조방안」, 이화여대 석사학위 논문, 1997.

19) 홍성룡,「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설단원의 분석과 평가」, 부산대 석사학위 논문, 2002.

20) 안혜정,「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설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아주대 석사학위 논문, 2002

21) 이숙형,「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설 분석」, 고려대 석사학위 논문, 2000.

교과서 소설단원에는 어떤 수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으며, 학습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한 내용인가의 여부를 검토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2001년부터 시행된 제7차 교육과정을 6차 교육과정의 교과서와 비교한 점이 다른 논문들과 구별되는 점이다. 그러나 이미 7차 교육과정이 시행된 시점에서 지나치게 구체적인 6차 교과서의 분석으로 인해 7차 교육과정 속의 교과서를 분석한다는 논의의 초점을 흐렸다는 한계를 가진다. 또한 이숙형과 김정수의 논문은 '학습활동'의 문항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소설 제재 분석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문제점을 지적할 뿐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점이 한계이다.

신용옥[22]은 2학년 전체와 3학년 1학기 교과서의 소설 7작품을 바탕으로 '학습활동'문항을 분석했다. 소설제재에 대한 내용,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달성 여부 등이 판단기준이다. 논의의 초점은 '학습활동'에 포함된 문항들 속에 소설 제재에 대한 어떠한 수업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지, 그리고 이들이 교육과정의 목표와 내용을 달성하기 위해 얼마나 충실하게 짜여져 있는지에 맞추고 있다. 역시 위의 논문과 마찬가지로 분석의 기준은 학습목표 달성 여부이다. 제재의 분석과 '학습활동'의 문항분석이 조화롭게 이루어져 있으며 김정수에 비해 문항분석에 훨씬 더 초점을 맞춘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 주목 할 부분이다.

그러나 '학습활동'을 단원을 '문항이 학습목표를 잘 반영 했는가' 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분석하였고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데까지 발전된 논의를 하지 못했음이 한계이다. 또한 문제점의 지적을 '문항수가 많다. 단조로운 문항이다.'등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러한 분석에 대한 판단 기준이 구체적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인 해석으로 밖에 생각되지

22) 신용옥,「제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 제재 '학습활동' 분석」, 상명대학교 석사 학위 논문, 2003.

않는다. 예를 들어, 그의 논문 결론 부분에 다음과 같이 내용을 정리한다.

> 각각의 소설 제재를 떠나 '학습활동'의 전체적인 구성으로 보았을 때 또 다른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할 수 있다. 먼저 '학습 활동'의 문항수가 너무 많고 문학작품을 읽고 줄거리를 요약하거나 사건을 정리해 보는 등의 중복되고 단조로운 문항들로 이루어져 있다는 것이다.

논문의 성과를 정리하는 결론 부분에서 판단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도 제시하지 않고 전체의 '학습활동'을 '중복되고 단조롭다' 등의 추상적인 결과로 마무리 지은 점이 한계로 판단된다.

손인규[23]는 중학교 1학년 국어 교과서 중 소설단원의 '학습활동'이 7차 교육과정 정신에 적합하고 국어과의 목표성취를 위해 적합한 내용과 구성으로 이루어져 있는지를 분석하여, 그 문제점을 찾아 개선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역시 위의 연구들과 동일한 분석기준인 '학습목표의 반영 여부'라는 단일기준으로 문항을 분석하여 폭넓은 논의나 새로운 의견을 찾기 힘들다는 한계점을 지닌다. 하지만 '학습활동'의 범위를 '학습 후 활동' 뿐만 아니라 '읽기 전 활동'과 '읽기 중 활동'도 포함하여 연구했다는 점이 주목된다. 7차 교육과정의 개정 중점인 '과정중심, 활동중심, 학습자중심'이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파악하는데 도움이 되는 가치를 지닌 연구이다.

지현정[24]은 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설제재 6편을 대상으로 하여 학습목표와 교육과정 내의 부합성 여부를 밝히고 이를 기준으로 하여 '학습활동'의 문항을 분석하고 있다. 논문에서 다루게 되는 작품을 대단원명의 반복여

---

23) 손인규,「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단원 '학습활동' 분석 」, 경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4.

24) 지현정,「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학 단원 '학습활동'의 분석적 고찰」, 강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06.

부, 교육적 가치, 학생의 흥미, 문학사의 위치를 기준으로 변별적 선택을 했다는 점이 다른 논문과 구분되는 점이다. 그러나 각 단원별 분석이 충분한 이해를 가져올 수 있을 정도의 세밀한 분석이 아닌데 그것은 판단기준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다는 한계에서 비롯된다. 문항의 분석 내용 및 문제점의 지적이 위의 김정수의 논문과 거의 동일하다.

지금까지 선행논문을 검토해 본 결과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문제점은 본 연구가 극복해 나가야 할 부분이다. 그것은 '학습활동'의 문항 자체에 대한 분석보다는 소설 제재 분석에 논의의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 손인규의 연구를 제외하고 문제점을 지적할 뿐 개선방향을 논의하고 있지 않다는 것이다. 또한 분석기준이 거의 동일하여 새로운 해석과 의견을 기대하기 어렵다는 점, 그리고 앞의 신용옥의 논의와 같이 문제점의 지적에 대한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다분히 주관적이고 감상적 해설을 나열하는 경우가 많다는 문제도 있다. 논리적인 분석이 주관적이고 감상적일 때, 신뢰성은 사라지므로 명확한 평가기준의 틀을 제시한 후 이에 기준하여 문항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제시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새로운 교육과정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이 개정 고시되고 이를 바탕으로 한 교과서 발행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교과서의 구성이나 체계에 대한 분석은 반드시 앞으로 시행될 교육과정과 교과서에 반영될 개선방안으로 귀결되어야 한다. 그러나 대부분의 선행연구들이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학습목표의 반영 여부'라는 반복된 기준으로 문항 자체만을 분석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분석과 함께 교육과정의 효과적 개정과 실행을 위해 '학습활동'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려고 한다. 앞에서 언급한 바 있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개선방안이 나아갈 방향에 바탕을 두고자 한다. 개정 교육과정 시안에서 변화된 부분을 파악하여 우리 교과서와 '학습활동'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 논의할 것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어과의 교과서가 제 7차 교육과정의 학습 활동 구성방향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문학 영역과 단원의 목표를 달성하기에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알아본 후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학습 후 활동이 학습 목표를 잘 반영 했는가'를 주제로 기준과 분석대상을 반복하여 새로운 분석과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다는 선행 연구의 문제점을 극복하는 것이 유념할 부분이다. 이에 본 연구는 다원적인 6가지의 평가기준과 교과서 내 전체 활동을 연구대상으로 제시하여 분석기준, 주제의 확대측면에서 차별 점을 두고자 한다.

3. 연구대상 및 방법

3.1. 연구대상

먼저 연구대상의 측면에서 지현정을 제외하고 연구들의 분석대상이 7학년, 8학년1학기까지의 국어교과서이므로(교과서의 개정이전) 본 연구에서는 상대적으로 연구가 미진한 9학년의 중학교 국어교과서의 소설단원을 중심으로 하여 분석하려고 한다. 즉 본 논문에서 연구할 대상은 제 7차 교육과정에 따른 중학교 3학년 국어과 교과서 소설 단원의 학습 활동이다. 여기서의 학습 활동은 교과서 구성요소 중 소단원의 '학습 후 활동' 뿐만 아니라 교과서 내의 모든 활동 지시문을 포함한 개념으로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읽기 전에', '날개', '내용 · 목표 · 적용 활동', '생각 넓히기', '보충·심화- 자기 점검'의 학습 전-중-후의 활동 전체를 대상으로 한다.

3.2.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학습 활동이 교육과정 특성과 문학 영역의 기능, 학습목표에 적합하게 선정되었는지를 살펴보기 위하여 대상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가장 중요시 한 것은 단원별로 학습 활동의 구성 방식을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그 과정에서 분석의 기준이 된 내용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1) 국어과 성격 및 교육목표

본 논문에서는 교과서가 교육내용을 구체화시키고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목표를 전달하는 수단인 만큼 교육과정의 의도를 충실히 반영해야한다는 관점에서, 중학교 3학년(1,2학기)국어 교과서의 학습 활동을 분석하였다. 교육의 주요이념은 7차 교육과정의 목적 및 성격을 규정짓고, 이는 다시 국어과의 교육목표를 설정하는데 영향을 준다. 그리고 이러한 국어과의 교육목표는 대단원의 수업목표를 방향 짓는다. 이러한 관계를 살펴보았을 때 국어과의 성격 및 교육목표는 교과서의 구성요소인 '학습활동'의 상위요소로서 평가의 기준이 될 수 있다.

(2) 국어과 교과서의 기본 방향

국어 교과서는 국어과 교육과정과 그것이 실제 전개되는 교수· 학습의 과정을 연결하여 주는 교량적인 역할을 한다. 따라서 교과서는 국어과의 교육 내용을 선정, 조직하고 교수·학습을 결정하는 '학습활동'의 보조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결국 국어교과서는 국어과의 교육내용(학생들이 배워야할 지식, 개념, 원리, 기능 등)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교재이며 도구인 것이다. 국어과 교과서의 기본방향을 '학습활동'의 분석 이유로 삼은 것

은 이 때문이다.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에는 6차 교과서에 대한 검토를 바탕으로 제 7차 국어과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학습활동' 역시 교과서 내적 구성요소 중 하나이므로 국어과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을 수용하고 있어야 함은 당연하다. 그러므로 이에 근거하여 '학습활동'을 살펴보는 것도 '학습활동'이 원래의 의도대로 바람직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는 좋은 방법이 될 것이다. 내적 구성방식과 관련되며, 앞서 제시한 '교육과정 특성반영' 항목과 겹치지 않는 것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25].

①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 강조
②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서
③ 학생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과서
④ 결과가 아닌 과정을 지도하는 교과서
⑤ 자기 점검을 통한 초인지 기능의 신장
⑥ 지식, 기능, 태도를 효과적으로 정리해 주는 교과서
⑦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깨달음을 이끌어 주는 교과서

(3) 대단원의 학습목표

대단원의 학습목표는 2~3개로 제시되는 소단원의 내용과 학습목표를 아우르는 목표를 제시하여 주요학습내용에 대한 확인과 강조의 역할을 한다. '읽기 전에', '날개', '내용 · 목표 · 적용 활동', '생각 넓히기', '보충·심화-자기 점검 ' 이 대단원에 속해 있는 활동들이다. 그러므로 활동의 시기와 성격에 상관없이 이 모든 활동은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는 셈이다. 그러므로 이들 활동이 대단원

25) 교육인적자원부,『중학교 국어과 교사용지도서 1-1』,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36-37면.

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에 적절한 활동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학습 후 활동' 중 '목표학습'은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가장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활동이며 '적용학습'은 주로 2개씩 제시되어 있는 대단원 학습목표 중 주로 2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문항분석의 기준으로 삼은 까닭은 학습목표가 학생들의 목적 있는 학습을 위한 필수적 요소이기 때문이다. 또한 학습목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교육내용이고 이는 대단원명과 연계하여 단원에서 거두고자 하는 학습목표를 감안하여 지정되므로 '학습활동'을 분석하는데 있어 중심 잣대가 될 수 있다.

(4) 학습 전-중-후 활동의 적절성

흐름에 맞는 질문과 활동은 학습을 가장 성공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는 방법이다. 그러므로 학습 전-중-후의 활동의 문항이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문항으로 이루어 졌느냐 하는 문제는 아주 중요하다.

'읽기 전 활동'에서는 주로 학습자의 경험과 사전지식을 동원하는 질문을 함으로써 관심을 환기시켜 주는 질문이 좋다. 또한 후속될 내용의 요점에 대한 질문을 자료 앞에 제시함으로써 주의를 유도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읽기 중 활동'에서는 학습할 내용을 질문의 형식으로 제시하고 그에 대한 답을 구하는 활동이 적당하다.

마지막으로 '학습 후 활동'에서는 본문 제시 후에 학습의 요점을 확인하고 강조하는 문항이 적당하다. 또한 본문의 내용을 적용, 응용, 일반화하며 답할 수 있게 하는 사고 확장을 위한 활동을 배치하는 것이 좋다. 교과서에서의 질문은 이중 어느 한두 가지에만 집중하는 것보다는 다양한 목적의 질문을 골고루 활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교과서의 구성과 학습단계에 맞춰 적절한 질문을 제시해야 한다.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기저로 하여

학습제재의 특성에 부합하도록 연관성을 가지는 것 역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26]

(5) 학습 후 활동 내 내용 · 목표 · 적용학습의 적절성

교과서 전체에 시기별로 제시된 활동을 분석대상으로 하고 있지만 단원 내에서 가장 비중을 둔 것은 활동의 개수나 범위로 보아 역시 '학습 후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학습 후 활동'은 내용 · 목표 · 적용이라는 다른 영역을 대상으로 활동을 진행하기 때문에 각 활동의 성격에 맞는 적절성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 또한 '학습 후 활동'이라는 큰 틀 아래에서 연관성을 가지고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어야 함은 물론이다. '학습 후 활동'이 각각의 영역과 성격에 맞지 않는다면 학습자는 지금까지 학습한 내용을 의심하고 혼동하게 된다. 교육과정과 대단원의 학습목표라는 기준 아래 세 영역의 적절성과 상관성을 분석하여 '학습 후 활동'이 학습의 마지막 단계를 잘 마무리하고 있는지에 대해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6) 단원 구성 요소의 통일성과 연관성

위의 (3)~(5)의 기준이 '학습활동'그 자체만 대상으로 한 분석이었다면 (6)의 기준은 거시적인 틀에서 '학습활동'을 교과서의 일부로 파악해 대단원명-학습목표-소단원의 제재-'학습활동'-보충·심화의 전체적인 흐름과 통일성 및 연계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교과서 구성체제와 내용 전체를 포함하는 분석이라 할 수 있겠다. '학습활동'이 단원 내의 구성요소인 만큼 한 단원을 구성하는 모든 요소와의 연계성을 가지고 그 틀에서 벗어나지 않아야 하므로 이 또한 분석 기준이 된다.

'학습활동'을 다원적인 기준으로 분석하는 것은 교과서 구성체제와 내용

---

26) 교육인적자원부 , 『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지도서 1-1 』,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에 있어 '학습활동'이 독립적인 영역이나 구성요소가 아니기 때문이다. 7차 교육과정의 주요이념은 국어과의 교육목적에 영향을 주고, 이것은 구체적 국어과의 교육목표를 설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국어과의 목표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것이 대단원의 학습목표이다. 국어교과서는 하나의 대단원에 2개 정도의 학습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했다. 즉 교육목표와 교육과정의 내용, 학습목표가 상호연관성을 띠고 있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교과서의 구성은 교육과정의 학년 내용에 기초하여 학습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선택, 단원을 구성하는 것이 순서이다. 그리고 단원의 하위요소로 '학습활동'이 존재한다. '학습활동'은 이와 같이 여러 계층의 교육의 상위요소 아래 존재하고 있다. 이 상위의 흐름과 규칙을 '학습활동'이 필연적으로 내포하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분석의 기준은 다원적일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또한 위의 연구사 검토에서 밝힌 바 있듯이 연구들에서 새로운 분석결과와 문제점을 발견하기 어려웠던 것은 ‘학습목표의 반영여부’라는 하나의 기준으로 활동을 분석했기 때문이다. 대단원의 학습목표 역시 교과서의 구성 방향 및 교육과정의 내용, 제재의 갈래 등 많은 상위요소와의 연관성 아래 존재하고 있으므로 이 같은 요소들이 모두 '학습활동'을 분석하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본론이 시작되는 제 2장에서는 '학습활동'을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의 기저가 되는 제 7차 교육과정 내 국어과 목표에 따른 소설교육의 목표와 성격에 대해 알아 볼 것이다. 국어과의 목표와 소설교육의 목표는 교과서의 가장 근본적인 내용임과 동시에 '학습활동'을 분석하는 가장 큰 잣대이자 기준이다. 분석의 대상이 될 교과서의 구성 및 소설단원의 지도내용 개괄을 통해 소설 단원의 내용구성과 활동이 가져야할 성격을 알아보는 것이 이장의 주요내용이다.

제 3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중학교 교과서 소설단원의 '학습활동'을 살펴

보기로 한다. 먼저 '학습활동'의 성격과 구성을 알아본다. 그 후 9학년의 3개 작품(<원미동 사람들>, <운수 좋은 날>, <박씨전>)을 대상으로 앞에서 제시한 여섯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문항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정리한다.

(1) 국어과 성격 및 교육목표
(2) 국어 교과서의 기본 방향
(3) 대단원의 학습목표
(4) 학습 전-중-후 활동의 적절성
(5) 학습 후 활동 내 내용·목표·적용학습의 적절성
(6) 단원 구성요소의 통일성과 연계성

<보기1> '학습활동' 문항 분석의 기준

위의 여섯 가지 기준을 바탕으로 분석결과를 정리하고 4장에서는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검토를 통해 '학습활동'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으로 본 연구를 마무리 짓기로 한다.

Ⅱ. 제 7차 교육과정 소설 단원의 교수 목표와 지도 내용

1. 국어과 목표에 따른 소설 교육의 성격과 목표

제 7차 국어과 교육 과정 구성에서 가장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된 것은 사회의 변화와 교육적 관심의 변화이다. 지식과 정보를 중요시하는 21세기의 지식·정보 기반 사회, 후기(또는 탈)산업 사회를 염두에 둔 교육과정이다. 따라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이런 시대적 요청을 수용하여 학교 교육에서 '창의성'을 크게 강조하였고, 실제 수업에서는 학생들의 현재의 수준을 고려하여 그 수준에 적합한 교육을 하고자 하는 '수준별 교육'을 강조하였다.

제 7차 교육과정의 또 다른 특징은 지식 기반 사회의 도래에 따른 기초 및 기본 교육의 강화이다. 이런 사회에서는 생활에 요구되는 지식 및 정보의 수준이 전보다 훨씬 높고, 기존 지식의 활용보다는 새로운 지식의 창출이 가치롭게 여겨지며, 윤리와 도덕에 기초한 인간성의 확보가 매우 중요하게 여겨진다.[27] 국민공통 교육기간인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등학교 1학년까지 국어 학습을 통해 도달해야 하는 국어교육의 목표는 다음과 같다.

>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의 본질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언어활동의 맥락과 목적과 대상과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서 국어를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사용하며,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국어의 발전과 민족의 언

27)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2-1』,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2, 20면 참조.

어문화 창달에 이바지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

가.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

나. 정확하고 효과적인 국어사용의 원리와 작용 양상을 익혀, 다양한 유형의 국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사상과 정서를 창의적으로 표현하는 능력을 기른다.

다.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

<보기2> 제7차 교육 과정 내 국어과의 교육 목표

이러한 중요한 변화와 요구가 총론은 물론 각론인 국어과 교육과정부터 문학교육, 그 중에서도 소설 교육에 반영되어있다. 위의 인용에서 보듯이 제 7차 교육 과정의 목표는 전문과 세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문은 국어교육과정의 축을 이루는 세 영역, 즉 말하기· 읽기·쓰기의 '언어활동'과 '언어' 및 '문학'에 대한 이해, 그리고 이 셋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국어생활과 국어 문화 발전에 이바지 할 수 있는 능력과 태도를 기르는데 국어과의 목표를 두고 있음을 명시하고 있다. 그리고 세 하위 진술에서는 먼저 언어활동, 국어, 문학의 기본적인 지식에 대한 학습을 명시하고, 다음에 이 지식을 언어생활에 창의적으로 활용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언어와 관련되는 여러 생활 측면에 관심을 가지고 바람직한 문화를 창조할 것을 언급하고 있다.

이상 일반적인 목표와 교육과정상의 목표를 정리해보면 몇 가지 공통점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 문학을 통해 다양한 인간의 삶의 모습을 경험하고, 이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러 각도에서 삶을 재조명할 수 있다. 둘째, 문학을 통해 자아를 실현하고, 문학의 가치를 자신의 삶에 적용할 수 있다. 셋째, 문학적 감수성과 상상력을 기를 수 있다. 넷째, 문학의 가치와 전통을 이해하고 문학 활동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문학 발전 및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기여할 수 있다.

위의 내용과 함께 문학교육의 목적으로 삶의 총체적 체험을 제시한 것은 소설교육과도 관련이 있다. 소설은 거기에 반영되는 치열한 삶과 인식의 지평을 추구하는 인간상의 창조라는 면만으로도 소설의 교육성을 이해할 수 있다. 이에 구인환은 보다 구체적인 소설 교육의 목표를 다음과 같이 제시하였다.[28]

· 인간의 삶에 대한 심화된 체험이 이루어져야 한다.
· 허구적 상상력을 통해 현실 초극의 힘이 형성됨을 이해시킨다.
· 소설의 재미를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 민족어의 감수성을 개발하고 민족어에 대한 사랑을 갖게 하고, 민족어의 사용능력을 신장해 주어야 한다.

<보기3> 소설교육의 목표

소설 교육의 목적은 소설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되며, 소설 교육 내용의 지침이 될 수 있다. 그것은 소설 교육의 목적에 알맞은 작품이 선정되어야 하고, 학생들이 소설 작품 감상력을 키울 수 있는 소설 내용을 선정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또한 소설교육의 궁극적인 목표는 소설텍스트를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이 능력을 바탕으로 학습자가 자신의 삶을 성찰하고 새로운 삶을 설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소설 교육은 학습자의 문학 능력을 증진시켜, 문학적 체험이 실제 삶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자기 성찰과 새로운 자기 형성을 함양하는 것이 될 필요가 있다.[29]

---

28) 구인환 외, 『문학 교육론』, 삼지원, 1988.

29) 선주원,『소설교육의 원리와 방법』, 새미, 2003.

2. 소설 교육의 내용 및 지도내용

소설 교육의 목표는 소설 교육에서 다루어야 할 학습 목표인 동시에 소설 교육에서 도달해야 할 목표인 동시에 학습이 끝난 후 평가되는 평가 요소가 된다. 위에서 제시한 국어과의 목표 진술에 따른 국어과 문학 영역의 지도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은 '문학의 본질', '문학의 수용과 창작'[30], '문학에 관한 태도'의 학습이 개별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실제의 문학 활동과 유기적으로 관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내용 체계'를 구조화하였다.

문학적 국어사용 능력[31]은 문학에 대한 지식을 학습한다고 하여 질적으로 향상되지는 않는다는 것은 최근의 문학 교육 논의 관점을 수용한 결과이다. 참고로 '문학의 수용과 창작'에서 '창작'이 문예 창작에 강조점이 있는 것이 아니라, 개별 문학 작품에 대한 학습자의 문학적 반응을 당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활동에 강조점이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그러므로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인 문학 지식은 문학 능력 향상에 도움을 주는 지식이어야 하고, 그 지식은 학습자가 개별 문학 작품을 읽고 해석하고 평가하는 실제의 문학 활동을 전개하는 국면에 활용할 수 있는 것이어야 하며, 실제

30) 개별 문화 작품을 이해하고 감상하는 원리와 관련된 교육 내용의 범주명으로 '문학의 수용과 창작'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였다. 이 범주의 교육 내용이 현행 교육 과정의 '문학 작품의 이해' 범주의 교육 내용와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문학의 수용과 창작'으로 바꾸어 사용하였다.

31) 문학 영역의 교육 목표가 문학 능력 신장에 있다고 보는 관점이 있다. 문학 능력을 문학을 만들고, 이해하고, 수용하는 능력으로 정의하는 관점(우한용:1997.56)을 수용하는 경우 이 능력이 국어사용 능력을 구성하는 하나의 요인 또는 측면이자 국어사용 능력과 상호 교섭 관계에 있는 능력으로 볼 수 있게 해 주나 두 능력 간의 관련성은 충분한 논의를 거쳐 정립해야 할 것이다.

의 문학 활동을 통해 그러한 지식이 습득되도록 해야 한다는 관점을 유지하였다. 이것이 학습자가 개별 문학 작품을 능동적으로 수용하고, 그 결과를 다양한 방식으로 표현하는 창조적 '학습활동'을 강조한 이유이다. 또, 문학 영역의 교육 내용을 체계화한 방향이자 '학년별 내용'을 제시할 때 '문학의 수용과 창작' 범주의 학습 활동, 특히 다양한 유형의 개별 문학 작품 읽기와 평가 활동을 강조하고자 한 이유이다. 이러한 관점을 반영한 문학의 내용체계는 다음과 같다.

문학	◦ 문학의 본질 -문학의 특성 -문학의 갈래 -한국 문학의 특질 -한국 문학의 사적 전개	◦ 문학의 수용과 창작 -작품의 미적 구조 -작품의 창조적 재구성 -작품에 반영된 사회 문화적 양상 -문학의 창작	◦ 듣기의 태도 -동기 -흥미 -습관 -가치
	◦ 작품의 수용과 창작의 실제 -시(동화) - 소설(동화, 이야기) -희고(극본) - 수 필		

<표1>문학의 내용체계

문학 영역의 학년별 내용은 내용 자체의 난이도, 텍스트 등을 고려하고, 계열성과 반복성을 강조하여 배열하였다.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명문화한 '문학의 창작' 과 관련된 교육 내용은 전문적인 문예 작품의 창작보다 문학 작품에 대한 능동적인 반응을 강조한 것으로 문학적 표현 활동을 의도하였기 때문에 말하기, 쓰기 영역과 긴밀하게 관련지어 배열하였다. 이러한 사항들과 관련하여 제 7차 교육 과정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 교육의 문학지도 내용을 각 학년별 내용 중 본 연구의 분석 대상이 되는 9학년의 내용을 살펴보기로 한다.[32]

32)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육과정해설』, 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58~91면 참조.

<9학년>

[9-문-(1)]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안다.

【기본】◦ 한국 문학과 한국 문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심화】◦ 심화 활동은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작품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한다.

[9-문-(1)]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기본】◦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예로 들어가며 말한다.

【심화】◦ 역사적 사건이 한국 문학의 흐름에 끼친 영향 관계를 토의한다.

[9-문-(3)] 작품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이해한다.

【기본】◦ 작품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찾고 그 특징과 효과에 대하여 말한다.

【심화】◦ 작품에 쓰인 여러 가지 표현 방식을 이용하여 글을 쓴다.

[9-문-(4)]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을 파악한다.

【기본】◦ 작가의 개성이 드러난 부분을 찾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말한다.

【심화】◦ 작품에 드러난 작가의 개성에 대하여 친구들의 의견을 듣고, 이를 자신의 생각으로 표현한다.

[9-문-(5)]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작품 창작 동기를 관련지어 이해한다.

【기본】◦ 기본 활동은 작품의 사회·문학적 상황이 작가의 창작 동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말한다.

【심화】◦ 작품을 읽고 사회·문학적 상황이 바뀐다면 작가는 어떤 글을 쓰게 될지 토론한다.

[9-문-(6)]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쓴다.

【기본】◦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을 알고, 읽은 작품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정리하여 글로 쓴다.

【심화】◦ 한국 문학의 대표적인 작품에 대하여 쓴 감상문을 바꾸어 읽고, 친구의 감상문과 비교한다.

[9-문-(7)] 작품 세계를 창조적으로 수용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기본】◦ 감상문을 바꾸어 읽고, 작품 수용이 사람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토의한다.

【심화】◦ 작품에 창조적으로 수용하는 것이 왜 중요한지 토의한다.

<보기4> 교육과정 내 문학지도 내용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제 7차 『국어』 교과서의 구성 단원인 문학단원과 읽기단원 중 본고의 중심 내용은 소설 제재를 포함하고 있는 문학단원이다. 9학년의 내용을 표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1	대단원명	소단원명	교육과정의 내용	대단원 학습목표
1학기	3.독서와 사회	(1)독서와 사회, 문화의 만남(설명문) (2)원미동사람들(소설)	5) 작품에 드러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작품 창작 동기를 관련지어 이해한다.	·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시켜 설명 할 수 있다.
	6.한국현대문학의 이해	(1)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설명문) (2)가는 길(시) (3)깃발(시) (4)봄은(시) (5)운수좋은날(소설)	2) 한국 현대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 한국 현대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
2학기	4.고전문학의 감상	(1)한국문학 개념과 특질(설명문) (2)가시리(고려가요)	1) 한국문학의 개념과 목적을 안다 5) 작품에 드러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작품 창작 동기를 관련지어 이해한	· 한국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설명할 수 있다. · 고전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 할 수 있다.

		(3)시조두편(시조) (4)박씨전(고전소설)	다. 6) 한국 문학 작품의 대표적인 작품을 찾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쓴다.	

<표2> 중학교 국어 교과서 3학년 <문학>단원의 구성

위의 표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하나의 대단원에 2개 정도의 학습목표가 설정되어 있는데 이는 교육 과정에 제시된 내용을 바탕으로 이루어 진 것이다. 즉 단원과 교육과정의 내용, 학습목표가 상호연관성을 갖추어야 함을 알 수 있다.

교과서의 구성은 교육과정의 학년 내용에 기초하여 학습목표를 정하고 그에 따라 제재를 선택하여 단원을 구성하는 것이 순서이다. 제 7차 교과서 문학 단원에서 보이는 두드러지는 특징은 작품이 제 6차에 비해 눈에 띄게 많이 수록되어 있고 대체로 전문을 실어 부분이 아닌 전체를 읽고 감상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점이다. 또 다른 특징은 제 6차 교육 과정 교과서에서 문학 4대 영역인 소설, 시, 수필, 희곡이 독립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에 비해, 제 7차 교육 과정의 교과서에는 문학의 여러 장르가 혼합되어 하나의 문학 단원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이다. 문학의 여러 장을 통합하여 문학 대단원을 구성함으로써, 각각의 독립된 문학 장르가 가지고 있는 문학의 공통적 특성을 이해하고 총체적인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을 지니고 있는 소설교육이 학습자에게 의미 있는 문학적 경험이 되기 위해 다음 장에서는 문학 단원에 제시된 소설 제재의 '학습활동'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Ⅲ . 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설 단원의 '학습활동' 분석

1. 국어교과서의 내용 체계 및 구성

현재의 국어과 교육과정은 1955년 1차 교육과정이 시작된 이후 여섯 번의 전면 개정 과정을 거쳐 2000년 이후 7차 교육과정이 시행·적용 중이다. 7차 교육과정의 가장 큰 특징은 초등학교 1학년부터 고교 1학년까지 10년간은 '국민공통기본 교육과정'으로 정해 10개 과목을 가르치되, 학생별로 '수준별'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고교 2·3학년은 '선택중심 교육과정'으로 정해 학생들이 학업수준과 적성에 맞게 배울 과목을 선택해 심화학습하게 하는 것이다. 이와 같은 교육과정의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국어 교과서의 내용구성 및 전체 체계도 변화하였다. 교과서의 전체 체제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특징을 가진다. [33]

첫째, 『국어』와 『생활국어』의 2권 체제로 하여 다 교과서 체제를 통한 지도의 전문화를 꾀한다. 『국어』 교과서(약 240쪽)에서는 '읽기'와 '문학'영역을 다루고, 『생활국어』 교과서(약 130쪽)에서는 '말하기', '듣기', '쓰기','국어지식' 영역을 다루고 있다.

둘째, 대단원 수의 축소와 단원 학습 내용의 체계화를 추구했다. 과거에 사용했던 교과서와 비교하여 볼 때, 6단원 구성은 단원의 대형화라고 할 수 있다. 과거 교과서에서는 한 주에 한 단원씩 공부하도록 되어 있었다. 그리고 이런 교과서 체계에 대하여 일선 현장에서는 단원의 수가 너무 많

33)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지도서 2-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25면 참조.

고, 그에 비해 수업 운영 시간은 부족해 교과서의 진도를 나가기에 급급하다는 비판을 받았다. 이번 교과서의 대단원화는 바로 이런 비판에 대한 대안적 고려의 결과이다.

셋째, 교육과정에 명시된 지도 영역을 적절히 안배하여 교과서의 단원을 구성하였다.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 교육의 하위 영역으로 듣기, 말하기, 읽기, 쓰기, 국어 지식, 문학의 여섯 영역을 설정하고 있다. 그리고 이 각각의 영역에 대한 지도 내용을 5~7개정도 제시하고 있다. 1-1의 국어교과서에서는 교육과정에 제시된 각 하위지도 영역과 지도내용을 감안하여 단원별 영역 배정을 다음의 표에 나타낸 바와 같이 하였다.

구 분	1대단원	2대단원	3대단원	4대단원	5대단원	6대단원	7대단원
국 어(1-1)	문학	읽기	문학	읽기	문학	읽기	문학
생활국어 (1-1)	쓰기	말하기·듣기통합	말하기·듣기·쓰기 통합	국어지식	쓰기	말하기·듣기·국어지식 통합	쓰기

<표3> 1-1 국어교과서의 단원별 영역 배정

『국어』와 『생활국어』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는 다음 표와 같다.

(왼쪽)	대단원명 소단원명 삽화 (오른쪽)

단원의 길잡이 · 학습목표 (단원의 길잡이 내용)	(단원의 길잡이 내용)

(1) 소단원명 <읽기 전에> · 읽기전 활동 (읽기 중 활동 안내)	제재명 소단원 내용 각주	날 개

<table>
<tr><td rowspan="2">소단원 제재
끝</td><td>'학습활동'
· 내용 학습
· 목표 학습
· 적용 학습</td><td rowspan="2">마지막
소단원
학습 활동
끝</td><td rowspan="2">[생각넓히기]</td><td rowspan="2">〔보충 · 심화〕
자기 점검
보충 · 심화
안내</td><td rowspan="2">①첫째 번
활동
②둘째 번
활동</td></tr>
<tr><td>〔이 단원을
마치며〕

(오른쪽)</td><td>(새 대단원
시작)

(오른쪽)</td></tr>
</table>

<그림1> 국어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도[34)]

하나의 대단원은 보통 2~3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색깔 처리된 부분인 각 소단원의 '읽기 전에', '날개', '학습활동', '생각 넓히기', '보충·심화- 자기 점검, 활동'이 '학습활동'에 해당한다. 교과서의 단원 구성 체제에서 보여주듯이 '학습활동'은 전체 단원의 전-중-후에 위치하고 있고 이를 통해 학생들의 능동적인 국어학습을 돕고 있다.

2. '학습활동'의 성격과 구성

2.1. '학습활동'의 성격과 범위

국어과의 교육내용은 학습자가 반드시 알아야 할 것으로서의 '학습 요소(내용)'와 이 학습 요소를 학습함으로써 학습자가 할 수 있어야 할 것으로

34)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지도서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36-37면 참조.

서의 ‘수행’ 두 차원을 고려하여 선정된다. ‘학습활동’은 바로 국어과의 교육 내용 중 ‘수행’차원을 . 이를 국어 교육의 내용 범주화 와 관련지어 설명하면 ‘학습활동’은 학습자가 이해하고 표현해야 할 ‘실제(언어 자료/텍스트)’차원의 교육 내용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국어 교육의 궁극적인 목표가 다양한 목적으로 산출한 언어 자료를 비판적으로 이해하고 자신의 필요와 목적에 따라 적합한 형식의 언어 자료(텍스트)를 창의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능력, 즉 학습자의 국어사용 능력을 향상시키는데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현행 중학교 국어 교과서의 소설단원의 '학습활동'을 살펴보면 ‘느낌을 말해보자.’ ‘꾸며보자.’ ‘찾아보자.’[35]등의 청유형 활동이 중심을 이루고 있다. '학습활동'이 제시하는 문제 해결 과정은 학습 내용을 응용하여 문제해결을 유도하고 있다. 그래서 학습자 스스로 생각하고 활동하게 하는 사고 능력의 향상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다. '학습활동'은 그 자체로서 내용을 습득, 이해하는 교육적 기능뿐만 아니라 학습자의 동참을 통해 교육적 의의를 갖는다.

7차 국어 교과서 '학습활동'의 성격은 철저하게 과정 중심적이고 학습자 중심의 활동이다. 그리고 ‘읽기 전 · 중 · 후 학습활동’에 적용할 읽기 지도의 여러 가지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아이디어들도 다양하게 제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낙화>라는 시를 배우기 전 ‘낙화유수’로 사행시를 짓거나(3-1, 1단원 : 시와 표현), 시집가는 날을 뮤지컬 공연으로 연출하는(3-1, 5단원 : 읽기와 매체의 활용) 활동 등이 예가 될 수 있다. 제 7차 중학 국어교과서 개발에 명시된 교과서의 단원 구성내용 중, 소단원의 각 제재 관련해 ‘읽기 전 활동 · 읽기 중 활동 · 학습 후 활동’의 내용과 기능을 보면 아래와 같다.

---

35)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교과서 3-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111면 참조.

(1) 소단원의 '학습활동'[36]

(가) 읽기 전 활동

'읽기 전 활동'의 소단원에 제시된 제재는 학습 활동을 위한 기본 자료이다. 국어 교과서에서는 소단원의 각 제재를 기본 자료로 하여 '읽기 전 활동', '읽기 중 활동', 그리고 '학습 후 활동'의 세 가지 학습 활동을 할 수 있도록 구성되어 있다. 약 1쪽 분량의 짧은 질문이나 주의를 환기시킬 수 있는 자료를 제시한다. 읽기 전에로 나와 있는 '읽기 전 활동'은 크게 두 가지 문제로 구성한다. 하나는 곧 읽을 글의 내용과 관련된 학생의 사전 경험이나 지식을 동원하게 하는 문제이고, 다른 하나는 단원 학습 목표와 관련되는 사고 활동을 촉진 하는 문제이다. 이 두 번째 활동 즉 단원 학습 목표와 관련되는 활동은 곧이어 나오는 글 즉 소단원 글의 내용을 읽을 때에 해야 할 사고 활동이다.

(나) 읽기 중 활동(날개)

'읽기 중 활동' 은 선택 사항이다. 따라서 어떤 단원에는 이 활동이 포함되어 있고, 또 어떤 단원에는 이 활동이 포함되어 있지 않다. 이 '읽기 중 활동'의 구체적 내용은 앞에 '날개'로 제시된다. 『국어』 책 '메모하며 읽기' 단원을 예로 살펴보자. 이 단원에서는 메모가 잘 된 글을 첫 제재로 제시하고, 교사가 메모의 중요성, 메모의 내용, 메모의 방법 등을 지도한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재에서는 메모가 없는 보통 글 한 편을 제시하고, 학생에게 그 글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메모를 하게 한다. 물론 이 때 무엇을 어떻게 메모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앞의 첫 제재에서 배운 것을 참고로 한다.

---

36)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지도서 1-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36-37면 참조.

(다) '학습활동' (학습 후 활동 : 내용 · 목표 · 적용 학습)

소단원의 제재 읽기가 끝나면 곧이어 '학습 활동'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학습 활동이 이어진다. 2~3쪽 정도의 분량으로 이 학습 활동은 조금 전에 읽은 글을 얼마나 잘 읽었는가를 점검하고 평가도 해 보고 필요한 지도도 해 주는 활동이다. 학습 활동의 내용은 크게 '내용 학습', '목표 학습', '적용 학습'의 세 가지로 구성한다.

어떤 내용이나 형식의 글을 읽든지 그리고 무슨 목적으로 읽든지, 독자는 항상 읽은 글의 중심 내용만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중심 내용을 이해하지 못한 읽기는, 다른 어떤 세부적인 측면에서는 아무리 잘 하였다고 하더라도, 결코 잘 읽었다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모든 학습 활동에 반드시 '내용 학습'을 마련하였다. 글의 중심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는 질문을 주고 이 질문에 답하게 하는 방법, 주관적으로 중심 내용을 적게 하는 방법, 글의 줄거리를 정리하게 하는 방법, 주어진 여러 빈 칸에 내용을 적어 넣어 전체 중심 내용을 정리하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두 번째 학습 활동은 '목표 학습' 활동이다. 학생들은 단원의 길잡이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실제의 글을 자료로 삼아 직접 수행해 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활동의 방법은 '내용 학습'에서와 마찬가지로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목표 학습'의 내용이 다양하게 전개되는 이유는 각 단원 별로 교육과정에 명시된 내용과 학습목표가 다르기 때문이다. '목표 학습'은 '읽기 전에', '날개', '내용· 목표 · 적용 활동', '생각 넓히기', '보충·심화 - 자기 점검' 등 전 '학습활동'을 아울러 가장 학습목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는 '학습활동'이다. '목표학습'의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목표학습▶다음 작품을 읽고, 아래 표에 알맞은 내용을 적어보자. 그리고 문학 작품 읽기와 세상과의 만남, 문학 작품 읽기와 대화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사회적, 문화적 배경	읽고 느낀 점	작가 또는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
홍길동전			
흰 종이 수염			
올리버 트위스트			

<보기5> '목표 학습'의 예

9학년 국어 교과서 3단원 ‘독서와 사회’에서는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라는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위의 <보기5>과 같은 ‘목표학습’을 제시하고 있다. 각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정리하고 작품의 창작동기를 이해한 후 느낀 점, 작가 또는 등장인물에게 하고 싶은 말을 생각하게 물음이 학습목표를 잘 반영한 활동이라 할 수 있겠다. 그 밖에도 ‘토의를 통해 글을 더 깊게 이해 할 수 있다’의 대단원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이육사의 시 ‘청포도’를 읽고 그의 삶을 이해한 후 이육사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을 토의해 보게 하는 활동 등 대단원의 목표, 글의 종류와 내용 등에 따라 다양하고 폭넓은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제재 관련 마지막 학습 활동은 '적용 학습'이다. 이 적용 학습은 단원의 성격에 따라 들어 있는 단원도 있고 빠진 단원도 있다. 적용 학습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른 제재나 상황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학습활동' 중 학습자의 사고력과 응용력을 가장 필요로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대체로 두 번째의 목표 학습의 내용에 대한 적용이 주류를 이룬다. 앞서 '목표 학습'에서 제시했던 단원의 '적용학습'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적용학습▶ 다음 작품을 읽고, 아래 사항에 대하여 학습해 보자.

나아가세, 독립군아. 어서 나아가세.
기다리던 독립전쟁 돌아왔다네.
이 때를 기다리고 십년 동안에
갈았던 날랜 칼을 시험할 날이
나아가세, 대한민국 독립군사야. <독립군가> 일부.

1. 이 작품이 쓰였던 당시의 사회적 배경은 어떠했을까?
2. 위 '독립군가'를 읽은 후의 생각과 느낌을 이 작가에게 편지로 써 보자.

<보기6> '적용 학습'의 예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라는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다른 작품, 상황을 통해 이해해 보도록 하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그 밖에도 <무궁화>라는 설명문 제재의 '적용학습'으로 알맞은 사진과 그림을 넣어 공익 광고 대본을 만들어 보는 활동을 제시하는 등 가장 다양하고 흥미로운 자료와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적용 학습'의 특징이다.

(라) 생각 넓히기

소단원의 제재나 그에 관한 여러 관련 학습 활동 중에서 토론이나 토의의 주제를 찾고, 이 주제에 대하여 각자, 또는 모둠별로 토의나 토론을 전개해 보는 활동이나 학습자의 상상력과 창의력을 전개시킬 수 있는 활동이 주어진다. 이 활동에서는 듣기·말하기, 읽기, 쓰기를 통합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앞의 '목표학습'과 '적용학습'에서 제시한 3단원 '독서와 사회'에서는 소단원 제재 인 <원미동 사람들>과 관련한 생각 넓히기 활동으로 교과서에 제시되지 않은 소설의 뒷부분을 꾸며 쓰는 활동이 제시 되

어 있다. 그밖에도 설명문에서 무궁화에 대해 배웠다면 다른 나라의 국화를 찾아보는 활동을, 논설문을 배웠다면 최근 신문이나 방송 보도에 대한 논의활동을 하게 하는 등 영역과 매체를 넘나들면서 생각의 틀을 넓힐 수 있는 다양한 활동을 제시한다.

(2)보충 · 심화 활동

(가) 자기 점검

학생들이 스스로 자신의 학습 결과 또는 취미나 관심을 점검하는 활동으로 수준형과 선택형으로 나뉜다. 수준형에서는 학생들의 수준에 따라 보충 또는 심화를 하고, 선택형에서는 학생들의 관심이나 기호, 또는 취미에 따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을 선택하게 하였다. 성취형의 경우 명시적으로 학생들의 수준차를 나누는 것은 곤란하므로 학생 스스로 자신의 성취정도를 평가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활동을 파악하게 하는 것이 좋다.

(나) 보충 · 심화

'보충·심화' 활동은 교과서에 제시된 여러 학습 활동 중에서 학생들이 자신의 수준에 적합한 것을 선택하여 수행하는 학습 활동이다. 이는 앞서 말했듯이 자기 점검 활동의 질문을 통해서 선택하게 되는 데 7차 교육과정의 수준별 학습을 실현시키기 위한 과제라고 할 수 있다. '보충 활동'은 문학 작품의 내용과 학습목표를 다시금 이해시키는 문항이다. 그에 비해 '심화활동'은 이미 주요 내용을 이해한 학습자 스스로 문학작품의 주제와 학습목표를 다른 제재와 상황을 통해 스스로 파악하고 적용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어 계속 언급되고 있는 3단원 '독서와 사회'의 '보충활동'은 글을 읽고 문학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이해하는 활동을 제시한다. 그리고 '심화활동'은 문학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스스로

알아보는 문항을 제시하게 된다.

보충활동▶산동네 아이들의 가난함 속에서도 밝고 순수하며, 즐겁게 생활하는 수필 제시

1. 위의 글을 읽고 난 느낌을 말해보자.

2. 위와 같이 어린 시절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표해 보자.

▶<섬마을 아이들> 中 '구호물자'편 제시

1. 이 글에 나타난 시대상을 알아보자.

2. 위의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현재 나의 생활과 비교하여 발해 보자.

심화활동▶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 작품 제시

1. 다음 소설을 읽고, 이 소설에 나타난 사회상에 대하여 이야기해 보자.

<보기7> '보충 · 심화' 활동의 예

2.2. '학습활동'의 기능

위의 내용을 중심으로 '학습 활동'이 담당하고 있는 기능을 알아보면 교수 학습방법의 제시기능, 학습동기 유발의 기능, 연습을 통한 기능의 정착기능, 학습내용의 요약 정리기능, 중요 개념 원리 일반화의 기능, 평가 자료의 제공 기능 등이 있다. 즉 '학습 활동'은 교사와 학습자에게 교수 학습 과정별로 각자에게 부여된 과제 및 과제해결의 전략 등을 단계화하여 제시할 수 있다. 학습자의 심리적 지적 상태를 고려하여 좌절감을 주지 않는 범위 안에서 도전적인 과제를 줌으로써 성취도를 높일 수 있는 역할도 한다. 또한 학습 활동은 언어수행기능 영역에서 보충·심화 연습을 할 수 있는 자료 및 방법을 제시할 수 있으며 교수학습 결과 평가의 자료 및 방법을 제공할 수 있다. 그러므로 교과서에서 '학습 활동'이 차지하는 역할은 매우 큰 것이다.

3. 단원별 소설 제재 및 '학습 활동' 분석

3.1. 독서와 사회 - <원미동 사람들>

이 단원에서는 적극적, 능동적인 문학 작품 읽기가 중요하고 문학 작품 읽기를 통한 사회적, 문화적 경험 실천이 필요하다는 것을 설명문을 통해 구현하고 있다. 그다음으로, 학습자들이 구체적 작품을 읽어봄으로써 소설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작가의 창작 동기를 관련지어 보도록 하기 위해 설정되었다. 이 단원의 설정 취지는 학습자가 문학의 소통에 능동적으로 참여하여, 학생들이 만나는 사회현상, 문화 현상에 대해서 주체적인 입장을 취하도록 유도 하는 것이다. 독서와 사회는 1학년 과정에서 선행되었던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나타난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문학 , 중1-1, 7대단원)와 2학년 과정의 '문학 작품이 쓰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문학, 중 2-1, 4대단원)와 관련지어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선정된 단원이다.

전 학년 학습 내용과의 관련은 다음과 같다.

· 소통 행위로서 문학의 특성을 안다.(문학, 중1-1, 3대단원)
·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나타난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문학, 중1-1, 7대단원)
· 작품의 사회적, 역사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다.(문학, 중1-2, 6대단원)
· 문학 작품이 쓰인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을 고려하며 문학 작품을 감상할 수 있다.(문학, 중 2-1, 4대단원)

<보기8> 전 학년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

이는 <교육과정>의 내용에도 잘 드러난다.

[9-문-(5)] 작품에 드러난 사회·문화적 상황과 작품 창작 동기를 관련지어 이해한다.
【기본】◦ 기본 활동은 작품의 사회·문학적 상황이 작가의 창작 동기와 어떻게 관련되는지 말한다.
【심화】◦ 작품을 읽고 사회·문학적 상황이 바뀐다면 작가는 어떤 글을 쓰게 될지 토론한다.

<보기 9> 교육과정의 내용

이 단원의 학습목표는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을 수 있음을 알고,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이해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소단원 (2)에 해당하는 <원미동 사람들>은 연작 중 '일용할 양식' 편으로, 가난한 동네의 이웃 간에 멀어지는 갈등과 이해를 그리고 있는 소설이다. 소단원 (1)의 <독서와 사회·문화의 만남>을 통해 사회·문화를 만난다는 것의 의미 및 문학 작품 읽기와 더불어서 대화적 의사소통을 실천할 수 있는 방법 등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소단원 (2)에서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작품을 읽어보며 소설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소설을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소설 속의 사건과 비슷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봄으로서 소설 속의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 학습의 주안점이다.

첫째,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보기 10> 대단원 학습 목표

<원미동 사람들>은 소설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고려하여,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학생들이 생각하며 작품을 읽도록 구성하였다. 따라서 이 작품의 주제를 단정적으로 못 박지 않는 것이 좋다. 학생들의 다양한 반응을 통해 소설을 여러 관점에서 해석 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두는 것이 좋다. 또한 소설 속의 사건과 비슷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봄으로써 소설 속의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소설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이 소설을 통해 작가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를 생각해 봄으로써 가난한 동네의 이웃 간에 벌어지는 갈등과 이해를 생각하는 기회를 가진다. 또한 소설 속의 사건과 비슷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봄으로써 소설 속의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의 관계를 깊이 있게 이해하는 학습이 이루어지도록 한다.[37]

이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읽기 전-중-후 및 생각 넓히기, 보충·심화의 문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교수·학습내용	차시
소단원(2)	읽기 전 활동-읽기 전에	· <소나기>,<옥상의 민들레꽃>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 이야기해보기 · 소설 속의 현실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기	1~2
	읽기 중 활동	· 소설의 시간적, 공간적, 시대적 배경 추측하기 · 원미동의 마을 분위기, 원미동 사람들의 생활 형편 파악하기 · 등장인물의 행동을 바탕으로 앞으로 전개될 사건 추측하기 ·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의 원인 파악하기 · 내가 등장인물 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생	

37)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2-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20면 참조.

		각해보기 · 등장인물의 생각과 행동을 비판해 보기 · 등장인물들 간의 갈등의 원인 찾기 · 대화가 소설 속에서 어떤 역할을 하는지 알기	
	학습 후 활동-'학습활동'	내용학습 · <원미동 사람들>의 사건 전개 과정에 따른 동네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 반응과 행동의 이유 정리하기 목표학습 ·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나타내 주는 소재 찾기 · 이 소설을 통해 지은이가 말하려고 한 것 정리하기 · 인물들의 행동에 대한 자신의 생각 말하기 · 소설 속의 사건과 비슷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생각넓히기		· 소설의 뒷이야기 꾸며 보기	
보충 · 심화	자기 점검	· 자기 점검을 통해 단원 학습 내용의 이해 정도와 활동의 수행 정도를 학생 스스로 평가하기	3
	활동1	· 글을 읽고, 느낌 말하기 · 어린 시절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발표하기	
	활동2	· 글에 나타난 시대상 파악하기 · 현재의 나의 생활과 비교해보기	
	활동3	· 작품에 나타난 사회상 파악하기	
한자공부		·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한자어의 의미 파악하기	
이 단원을 마치며		· '이 단원을 마치며'를 읽고, 단원의 학습 내용과 활동을 정리하기	

<표4> 단원 전-중-후의 '학습활동' 문항

3.1.1. 국어과 성격 및 교육목표

먼저 이 단원이 제 7차 교육과정의 국어과 목표와 어떠한 상관성이 있는가를 살펴보기로 한다. 제7차 국어 교과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의 성격을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을 중시하고,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강조하여 교육 내용의 사회적, 개인적, 학문적 정합성을 추구한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살펴보았을 때 이 단원의 제재와 앞에서 살펴본 '학습활동'은 문학 작품읽기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경험을 습득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교육과정이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의 일정 부분을 담당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1980년대 도시 변두리의 평범한 사람들의 일상적인 삶은 현재 학생들이 접하지 못한 삶의 한 양상으로 이 같은 소설 작품을 읽고 내면화 하는 과정에서 학생들은 보다 폭넓은 사회와 문화를 경험하고 이를 현실의 삶과 연관 지어 볼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독서를 통해 내가 살고 있는 세계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내가 겪어 보지 못한 세계를 알게 되며, 역사의 본질적인 의미를 성찰하고자 하는 이번 단원에서 <원미동 사람들>이라는 제재를 선택한 것은 무리가 없다고 보여 진다. 그리고 이를 특히 잘 드러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읽기 전 활동 :<소나기>,<옥상의 민들레꽃>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 이야기해보기
  소설 속의 현실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기
* 학습 후 활동(목표학습):소설 속의 사건과 비슷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 보충·심화(활동2) : 글에 나타난 시대상 파악하기
  현재의 나의 생활과 비교해보기

3.1.2. 국어교과서의 기본방향[38)]

38) 교사용 지도서에서 밝히고 있는 국어과 교과서의 편찬 방향
① 학생들의 학습 동기 유발 강조
② 학생 활동 중심의 교과서
③ 학생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과서
④ 결과가 아닌 과정을 지도하는 교과서
⑤ 자기 점검을 통한 초인지 기능의 신장
⑥ 지식, 기능, 태도를 효과적으로 정리해 주는 교과서

국어 교과서는 국어과의 교육내용(학생들이 배워야할 지식, 개념, 원리, 기능 등)을 교수·학습하기 위한 교재이며 도구라는 점에서 교과서의 구성 요소인 '학습활동'의 상위기준이다. 그러므로 '학습활동'이 교과서의 편찬 방향을 따르고 있어야 한다. 이 단원의 제목이 '독서와 사회'이고 독서를 통한 사회·문화와의 만남을 통해 학습자가 깊이 있는 문학적 감상과 사회적, 문화적 실천을 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그러나 영상매체와 통신매체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자란 요즘의 학습자들은 독서에 대한 흥미와 동기유발이 부족한 편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번 단원에서는 교과서의 기본방향 중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강조'가 중요시 된다. 이 부분을 강조기 위해 읽기 전에서 '<소나기>,<옥상의 민들레꽃>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 이야기해보기'의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전 학년에서 배운 내용이기 때문에 학생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적절하다. 아쉬운 부분은 읽기 전의 소설제재와 <원미동 사람들>이 학습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문학과 삶의 관련성을 느끼지 못할 가능성도 있다. 그래서 '읽기 전 활동'에서 학습자들이 경험했을 법한 시대적 배경을 다룬 소설을 짧은 지문으로 제공하거나 찾아 읽는 활동을 제시했다면 자신들의 삶과 문학의 관련성을 조금 더 쉽게 이해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이번 단원에서는 특히 문학적 대화를 통해 학습자가 문학속의 삶과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은데 그러한 점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깨달음을 이끌어 주는 교과서'의 방향도 달성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이를 잘 드러내고 있는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읽기 전 활동 : 소설 속의 현실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기
* 읽기 중 활동 : 내가 등장인물이라면 어떻게 행동했을지 생각해보기

---

⑦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깨달음을 이끌어 주는 교과서

* 학습 후 활동 : 소설 속의 사건과 비슷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기
* 보충·심화 : 어린 시절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 발표하기
현재의 나의 생활과 비교해보기

그러나 이러한 학생의 깨달음을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과서'의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유도하는 활동이 없다는 것이 이 단원의 한계점이다.

3.1.3. 대단원의 학습목표

대단원 목표는 앞에서도 이야기했듯이 '첫째,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이다. 그런데 두 번째 문항과 달리 첫 번째 문항은 작품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배경, 그리고 작가의 사회적 동기를 고려하며 읽는 것과는 동떨어져 있어 적극적 문학읽기를 권장하는 이 단원의 설정 이유 및 교육과정의 내용과 괴리되었다고 판단된다. 첫 번째 소단원인 <독서와 사회·문화의 만남>이란 설명문과 두 번째 소단원인 <원미동 사람들>을 통틀어 첫 번째 문항이 학습목표로 제시되어야 할 내용을 찾기 힘들었다. 물론 능동적인 문학체험과 능동적인 의사소통이란 측면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과 의견을 수렴하는 것은 좋은 경험이지만 이번 단원의 설정 이유, 구성의 방향, 내용에서 그 의미와 중요성은 찾기 힘들었으므로 적당한 학습목표가 아니라고 생각된다. 이에 따라 '학습 후 활동'에서 이 단원의 목표 달성을 위해 제시한 문항인 '가게를 운영하는 세 사람의 행동과 동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는 확실히 다른 문항들과의 연관성이 떨어진다. 더군다나 이 문항이 학습목표를 달성하고자 했다면 '가게를 운영하는 세 사람의 행동과 동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에 그칠 것이 아니라 '자신의 생각을 말해 본 후 토의해 보자'등의 활동제시를 통해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과

정을 명시해 주어야 했을 것이다.

3.1.4. 학습 전-중-후 활동의 적절성

다음으로 살펴볼 '학습 전-중-후 활동'의 적절성 및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이 단원에서 '읽기 전 활동'으로 제시한 것은 두 가지 내용이다.

· <소나기>,<옥상의 민들레꽃>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 이야기해보기 · 소설 속의 현실과 내가 살고 있는 현실과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기

<보기 11> '읽기 전 활동'

전 학년 내용과의 관련성을 상기시켜 새로운 단원에 대해 친근함을 줄 뿐 아니라 문학작품 속의 사건은 현실을 바탕으로 재창조 된 것임을 이해시키는 문항이라 생각된다. 작품의 내용과 비슷한 경험을 자유롭게 생각해 봄으로써, 새로운 작품에 보다 쉽게 다가갈 수 있기 때문에 문학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경험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상기시키고 작품 속의 사건들을 통해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 만나는 사람들이나 사건을 보다 깊이 이해할 수 있다는 점을 학습자가 습득하기에 적절한 문항들이다.

'읽기 중 활동'에서는 등장인물의 말과 행동, 소설속의 갈등과 그 원인을 파악하는 문항을 통해 소설의 구성과 줄거리를 파악하기에 용이한 문제들을 제시하고 있으므로 학습자의 이해와 감상을 돕고 있다고 여겨진다.

'학습 후 활동'에서는 내용을 파악하기 위해 동네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 그리고 그 이유를 정리하는 활동과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나타내주는 소재를 찾고 작가의 창작동기를 파악하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소설 제재를 읽고 내용파악을 점검하는 문항이지만 단순히 줄거리를 파악하는 문항으로 제시되어 있지 않고 학습자가 인물들의 삶과 행동에 이입되어 그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유도한다는 점이 특징적인 문항이다. 문항의 제시에 있

어서 빈칸 채우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빈칸의 답이 내용파악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여겨지지만 인물들의 반응과 행동의 이유를 파악해보면서 학습자는 문학제재와 대화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삶과 문학적 삶의 소통과정을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학습목표를 잘 반영함과 동시에 학습자의 흥미와 문제해결력을 고려한 적절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3.1.5. 내용 · 목표 · 적용학습의 적절성

'학습 후 활동'은 내용 · 목표 · 적용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다. 여기에서는 내용 · 목표 · 적용의 적절성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먼저 이 단원에서 '내용학습'으로 제시한 문제는 '원미동사람들의 내용을 생각하며 이 소설의 사건이 어떻게 전개되는지 정리해 보자'이다. 교과서에 제시된 형식은 다음과 같다.

사건의 전개	동네사람들의 반응과 행동	반응과 행동의 이유
경호네 가게인 '김포상회'에서는( )와 ( )만 팔았었다. 그러나 '김포 슈퍼'로 이름을 바꾸고 가게를 확장하면서 김반장네가 팔던 ( ), ( ), ( )을 팔기 시작하였다.		
그러자 반찬거리만 팔던 김반장네 '형제 슈퍼' 역시 ( )와 ( )을 팔면서 경호네와 경쟁을 하기 시작한다.		
새로 개업한 싱싱 청과물이 또 ( )이외의 부식일체를 팔면서 경호네와 김반장네 가게와 경쟁을 하게 되었다.		
( )에 맞서 경호네와 김반장네는 ( )관계를 맺고 결국 ( )을 굴복시키고 말았다.		
한편 '써니 전자'와 같은 업종의 다른 전파상이 또다시 원미동 마을에 들어오게 되어 새로운 갈등이 시작되었다.		

<보기 12> '학습 후 활동'

어떤 내용이나 형식의 글을 무슨 목적으로 읽든지, 독자는 항상 읽은 글의 중심 내용만은 분명하게 이해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내용 학습'을 마련하였다. 글의 중심 내용에 대한 이해 여부는 질문을 주고 이 질문에 답하게 하는 방법, 주관적으로 중심 내용을 적게 하는 방법, 글의 줄거리를 정리하게 하는 방법, 주어진 여러 빈칸에 내용을 적어 넣어 전체 중심 내용을 정리하게 하는 방법 등 다양하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단원에 제시한 '내용학습'은 아주 단선적이고 주입적인 내용의 이해를 묻고 있다. 소설의 중심내용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빈칸 채우기 문항이 필요한 부분도 있다. 하지만 그러한 문항은 소설을 읽었다면 누구나 파악할 수 있는 주요내용을 파악하는데 필요한 것이다. 위에서 보는 것처럼 (　　)에 들어갈 답은 내용이해에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 단순히 가게에서 파는 물건의 종류를 답하게 함으로써 단순히 암기식 지식을 요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학습자가 다양한 사고와 학습을 하기 위해 위와 같이 세부내용을 (　　)을 주고 채우게 하는 방식은 좋은 문항의 예가 아니다. 사건의 전개와 동네 사람들의 반응과 행동, 그리고 그 이유를 학습자에게 파악해보도록 해서 학습자가 문학적 제재, 그리고 인물의 감정과 대화할 수 있으므로 문항의 의도는 적절했으나 제시 방법이 한계로 판단되는 문항이다.

사건의 전개와 동네사람들의 반응과 행동, 또한 이유를 묻고자 했다면 학습자의 흥미와 요구를 고려한 다양한 문항의 방법과 예가 훨씬 많았을 것이다. 예를 들어 인터뷰 형식의 문항을 제시하고 답하게 하거나 아니면 질문을 직접 학습자에게 만들게 하는 기자체험을 하게 했다면 학습자는 등장인물의 심리와 입장을 파악하거나 이해하는데 훨씬 더 흥미롭게 응할 수 있었을 것이다. 또한 사건의 전개에 따른 가게 주인 및 동네사람들의 반응과 행동을 그림으로 단순화시켜 표현하거나 그래프를 통해 나타내게 했다

면 학습자는 다양한 생각과 폭넓은 사고를 하는데 훨씬 유익했을 것이다. 지나치게 형식적이고 단편적인 지식을 묻는 ‘내용학습’의 문항은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목표학습'에서 학생들은 단원의 길잡이에 제시된 학습 목표를 실제의 글을 자료로 직접 수행해 보는 활동을 하게 된다. 그렇다면 이번 단원의 '목표학습'에 제시된 문항들은 대단원의 학습목표인 ‘첫째,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를 반영하는 질문과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그 의미를 가진다. 여기에서 제시한 문항들은 다음과 같다.

목표학습▶ <원미동사람들>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과 관련하여 다음 물음에 답해 보자.
1. 이 소설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나타내 주는 소재를 찾아보자.
2. 가게를 운영하는 세 사람의 행동과 동네 사람들의 행동에 대해 자신의 생각을 말해보자.
-경호네
-김반장
-싱싱 청과물 주인
-동네 사람들
3. 이 소설에서 지은이는 무엇을 말하려고 했는지 알아보자.
4. 이 소설 속에 나타난 사건과 비슷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자. 그리고 소설 속의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 보자.

<보기13> ‘목표학습’의 활동

첫 번째 문항은 이 소설의 배경이 되는 1980년대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나타내 주는 소재들을 찾아보는 활동을 하게끔 했다. 대단원의 두 번째 학습 목표 인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하는데

초점을 두는 문항이다. 그러나 단순히 소재를 찾는데 그칠 것이 아니라 각 소재들이 왜 당시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나타내는지를 함께 답하도록 문항을 만드는 것이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다. 이 과정을 통해서 소재 그 자체보다 소재들이 쓰인 상황과 문맥을 이해함으로써 당시의 상황을 더 잘 파악할 수 있기 때문이다.

두 번째 문항은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듯이 첫 번째 대단원의 학습목표인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음을 알 수 있다.'를 하기 위한 문항임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대단원의 학습목표 자체가 단원의 설정 취지와 소단원의 내용과 부합되지 않는 면이 많기 때문에 '목표학습'에서 역시 그 적절성을 찾기가 힘들다. 그래서 '목표학습'의 문항들 간에 연관성이 부족하다. 1,3,4의 문항이 대단원의 두 번째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인데 반해 2번의 문항이 갑작스레 첫 번째 학습목표를 따름으로써 문제 이해의 흐름이 단절된다는 것 역시 문제점이다. 내용의 자연스러운 이해와 흐름을 위해 문항의 배열 순서를 바꾸는 것이 적당하다고 여겨진다. 이 문제를 보다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모든 교과서의 내용 구성에 있어 '목표학습'의 문항을 '학습목표'에 맞추어 나누고, 그 안에서 세부적인 묶음들로 나눈다면 학생들이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인지하면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훨씬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것이라 예상된다.

세 번째 문항에서 묻고 있는 지은이가 말하고자 하는 바를 묻고 있는 문항은 학생들이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어떻게 이해하고 작가의 의도를 파악하는가에 있어서 필수적인 작가와의 대화의 과정이므로 아주 적절한 문항이라고 생각된다.

이 단원에서는 '적용학습'을 따로 두지 않고 있지만 적용 학습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른 제재나 상황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대체로

두 번째의 목표 학습의 내용에 대한 적용이 주류를 이룬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목표학습'의 네 번째 문항의 정체성을 다시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소설 속에 나타난 사건과 비슷한 일을 우리 주변에서 찾아보자. 그리고 소설 속의 현실과 우리가 살고 있는 실제 현실의 관계에 대해 생각해보자.’라는 이 문항은 지금까지 공부한 학습목표와 관련된 내용을 다른 상황에 적용해 보는 활동이므로 '적용학습'의 문항으로 더 적절하다고 할 수 있다. 이 단원의 내용-목표-적용의 상관성 및 적절성은 '내용학습'은 단선적인 지식을 묻는 문항의 내용과 형식으로 인해, '목표학습'과 '적용학습'을 적절하게 구분하지 못했다는 점과 특히 '목표학습'에서 문항의 흐름과 내용의 이해를 고려하지 못한 문항의 배열과 질문으로 인해 그 적절성을 찾기가 어려웠다고 볼 수 있겠다.

3.1.6. 단원 구성요소의 통일성과 연계성

이 단원에서는 ‘생각 넓히기’에서 소설의 뒷이야기를 꾸며 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학생들은 스스로 이야기를 꾸며보는 활동을 통해 작가의 입장에서 등장인물들의 심리와 행동을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으므로 대단원의 두 번째 학습목표와 일치하는 적절한 활동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거시적 안목에서 보더라도 창의적인 국어사용을 권장하는 7차 교육과정의 지향점과 일치한다. 즉 이해를 통해 창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학습이 바람직 한 것이다.

이 활동을 하기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해야 하고 사건의 전개과정을 검토하는 안목이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작가가 왜 이런 작품을 쓰게 됐는지 작품의 창작 동기를 이해하고 상상하여 쓸 부분에 이를 투영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결과적으로 작가의 작품 창작의도를 보다 깊이 있게 이해하는 과정을 경험하는 것이다.

이야기가 끝나면 자신이 꾸민 이야기를 발표하면서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

르게 읽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라는 이 단원과 괴리감이 있다고 보여 지는 학습목표를 어느 정도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야기의 전개나 결말에 대해 창작의도를 설명하는 시간을 갖는 것은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더욱 효과적일 것이다.

'보충·심화'를 제시하기 전 '자기 점검'과 흥미여부를 통해 '보충·심화'를 결정하도록 하는데 여기서 제시된 '자기점검'문항은 학생들이 읽기가 작가와 독자의 의사소통 과정임을 알고 있는지와 글을 읽을 때 작품에 나타난 시대 상황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는지를 확인하는 4개의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 자기 점검 ○
1. 읽기가 지은이와 읽는 이의 의사소통임을 설명할 수 있다.
2. 문학 작품에는 그 작품이 쓰였던 당시의 배경이 나타나 있음을 알 수 있다.
3. 나의 경험이나 처지를 생각해 가며 글을 읽을 수 있다.
4. 글을 읽을 때에 작품에 나타난 시대 상황을 파악하며 읽을 수 있다.

<보기14> '자기점검' 문항

자기 점검 문항 역시도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작품에 나타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의 문항을 비롯해 학습내용을 비추어 볼 때 이 단원의 학습 목표를 첫 번째 학습목표를 대신해 '작품을 통해 작가와 능동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라거나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등으로 제시되었다면 더욱 적절했을 것이다.

이 단원의 '보충·심화'에는 크게 세 가지 활동이 있다. ①,② 번은 글을 읽고 글이 사회적, 문화적 의사소통임을 이해하는 '보충활동'이다. ③번은 글을 일고 문학 작품이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알아보는 '심화활동'이다. 이를 위의 자기 점검을 통해 몇 개의 문항에 "예"라고 대답하느냐에 따라 기계적으로

‘보충 활동’과 ‘심화 활동’을 구분하는 것 보다는 학습자가 하고 싶은 활동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39]

활동①에서는 산동네 아이들이 가난함 속에서도 밝고 순수하며, 즐겁게 생활하고 있는 모습을 담은 글이다. 이 글을 통해 ‘1. 위의 글을 읽고 난 느낌을 말해 보자.’와 ‘2. 위와 같은 어린 시절에 있었던 재미있는 이야기를 발표해보자.’의 두 가지 물음을 던지고 있다. ‘작품에 나타는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공감적 읽기’를 위한 질문이라고 할 수 있고 제재의 내용이나 심화의 작품과 달리 구체적인 시대적 상황에 대한 선수지식이 없이도 자신의 경험을 상기시키며 편안하게 공감할 수 있는 제재와 질문을 적절하게 제시했다고 볼 수 있다.

활동②에 제시된 글은 <섬마을 아이들> 중 ‘구호물자’ 편의 일부분이다. ‘1.위의 글에 나타난 시대상을 알아보자.’와 ‘2. 위의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현재의 나의 생활과 비교하여 말해보자.’의 두 가지 질문을 던지고 있다. 활동①보다는 조금 더 구체적이고 발전된 수준의 문항으로 여겨지므로 순차적으로 활동을 접할 학습자에게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2번째 문항은 학습자에게 글을 읽은 후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를 질문함으로써 지금까지는 공통점을 찾을 수 없었던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을 수 있음을 알 수 있다.’의 문항을 어느 정도 반영하고 있다고 보여 지지만 이 활동이 단지 개인의 느낌을 묻는 차원에서 끝나기 때문에 역시 학습목표를 완전히 반영하고 있다고는 보기 힘들다. 위의 학습목표를 반영한 문항이 되기 위해서는 ‘위의 글을 읽고 어떤 느낌을 받았는지 논의 한 후, 현재의 나의 생활과 비교하여 말해보자’라는 형태로 제시하여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구체적인 활동을 제시해

39)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지도서 3-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184면 참조.

야 더 적절했을 것이다.

이 활동에서 한 가지 아쉬운 점은 이 글을 통해 학생들이 구호물자를 받아야 할 만큼 곤궁한 생활을 하는 어려운 시대라는 정도는 알 수 있겠지만 구체적인 상황은 알기 힘들므로 참고사항이나 알아두기를 통해 신문이나 사진을 통해 정보를 제시하였다면 더욱 완전하게 시대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다. 물론 교사가 개별적으로 제시할 수도 있지만 '보충·심화'의 활동은 개인적인 점검과 학습자의 자발적 학습이라는 성격이 강하므로 교과서에 제시되는 것이 더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활동3에서는 근대화와 산업화가 진행되던 1970년대를 배경으로, 변두리에 살고 있는 난쟁이 일가의 삶을 그리고 있는 조세희의 <난쟁이가 쏘아 올린 작은 공>을 제시하고 있다. 난쟁이 가족이 처한 상황을 중심으로 하여, 당시 사회상을 파악하는 문제를 제시한다. 제재의 내용과 주제 는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아쉬운 점은 <원미동 사람들> 과 시대적 배경, 사회적·문화적 상황이 크게 다르지 않다는 점이다. 시대적이나 문화적으로 본문의 학습제재와는 차이가 나는 작품을 선정했다면 '심화활동'을 통해 다양한 시대와 문화적 의사소통을 할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예를 들면 박지원의 허생전이나 양반전 같은 작품 중 학습자의 수준에 맞는 부분을 선정해 '심화활동'의 제재로 제시했다면 학습자들은 시대를 넘나들어 작품과 작가를 이해하고 소통할 수 있었을 것이다.

'생각 넓히기' 활동은 학습 목표에 대한 학습자의 이해와 창의력을 동시에 고려한 적절한 문항이었으며 '보충·심화'활동은 대체로 학습목표를 반영한 적절한 문항과 수준으로 이루어져 있었지만 '보충·심화'가 학습자의 자기점검성격을 띄고 자기 주도적 학습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때 학습자를 배려한 기초정보의 제시가 부족했다는 점, 시대적이나 문화적, 사회적으로 본문의 학습제재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작품을 선정하지 않아 다양한 시대와 문화

적 의사소통을 하기에 어려웠다는 점이 한계점이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단원에서 대단원명과 학습목표, 소단원의 제재, '학습활동'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살펴본다면 독서와 사회라는 대단원을 통해 학습자의 사회적, 문화적 체험을 유도하고자 했던 단원의 설정 취지는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학습목표②)’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적당했으나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음을 알 수 있다.(학습목표①)’의 대단원 목표는 전 단원을 걸쳐 소단원의 제재 내용, '학습활동'과도 연관성을 찾기 힘들었다. '학습활동'의 ‘전-중-후’의 모든 활동 뿐 아니라 자기점검을 비롯한 ‘보충·심화’의 활동까지 첫 번째 학습목표를 초점으로 둔 문항은 찾을 수 없었다. 굳이 이 목표를 제시하고자 했다면 학습의 전 단계에 걸친 활동에서 다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는 모둠활동이나 토론 활동이 한 문항쯤은 제시되어야 가능했을 것으로 보여진다. 학습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제시되는데 이 단원에서는 앞에서도 볼 수 있듯이 교육과정의 내용 역시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 만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학습활동'과 자기점검문항을 살펴봤을 때 괴리감이 있는 첫 번째 학습목표 대신 이보다 한 차원 넓은 단계라 볼 수 있는 ‘작품을 통해 작가와 능동적으로 의사소통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라거나 ‘그 방법을 찾을 수 있다.’ 등으로 제시되었다면 더욱 적절했을 것이다.

그러나 전 과정을 거쳐 두 번째 대단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대단원명과 학습목표, 소단원의 제재, '학습활동'이 모두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통일성과 연계성을 갖추는데 무리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자기 점검이 중요시 되는 ‘생각 넓히기’ 및 '보충·심화'활동에서도 앞에서 언급했던 첫 번째 학습목표와의 연관성을 찾기 힘들었고 대부분 첫 번째 대단원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적절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학습자의 이해를 바

탕으로 한 창의적 글쓰기를 제시한 점, 학습자의 공감적 읽기와 수준을 고려한 제재와 문항 제시는 긍정적인 부분이지만 '심화활동'의 제재 선정에 있어서 조금 더 폭넓은 시대적,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제시했다면 학습자의 다양한 글 읽기와 학습목표를 달성하는 데 있어 조금 더 효과적이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 단원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대단원의 학습목표 중 하나가 단원의 설정취지와 제재의 내용과 괴리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 및 문항 분석에 처음부터 끝까지 걸림돌이 되었다. 대단원의 학습목표는 단원을 구성하고 설정하는 데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이해하고 '학습활동'을 능동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되기 되는데 그 역할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원이었다.

3.2.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 - <운수 좋은 날>

이 단원은 문학 영역에 속하는 단원으로 학생들에게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시키고, 여러 작품에 대한 실제적인 감상을 통해서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기르기 위하여 설정되었다. 한국 현대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학습함으로써 개별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 데 필요한 배경지식을 얻을 수 있고, 문학을 보는 안목도 기를 수 있다. 또한 역사적 맥락 속에서 문학의 변화 과정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를 통하여, 학생들은 문학작품이 그 사회의 거울로서 그 시대 사람들의 삶과 이상을 반영하는 것임을 알고, 역사적 사건들과 연관하여 문학 작품을 이해할 수 있다. [40]

---

40) 교육인적자원부 ,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3-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 271면 참조.

전 학년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나타난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 중1-2, 6대단원) · 작품에 드러난 세계관과 그 시대의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관련지어 이해한다.(문학, 중2-1, 4대단원)

<보기 15> 전 학년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

단원의 설정 취지는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9-문-(1)]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한다. 【기본】◦ 한국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예로 들어가며 말한다. 【심화】◦ 역사적 사건이 한국 문학의 흐름에 끼친 영향 관계를 토의한다.

<보기16> 교육과정의 내용

이 대단원의 학습목표는 학생들로 하여금 그 당시 사회적 배경과 문화적 경향을 통해 한국 문학에 대한 역사적인 흐름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가질 수 있도록 하는 데에 있다. 이에 따라 이 단원에서는 현대문학에 대해 일반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글을 가장 앞에 두어,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학습하도록 하였다. 이를 통하여 개화기로부터 시작하여 1960년대 내지 1970년대에 이르는 한국 현대 문학의 개별적인 작품을 감상할 수 있도록 소단원을 구성하였다. 현대 문학 작품에 대한 개별적인 감상은 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이라는 거시적 맥락 속에서의 이해를 심화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현대 문학 작품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둔다.

첫째, 한국 현대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 둘째,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

<보기 17> 대단원의 학습목표

이 단원에서 중요한 목표가 되는 것이 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그 이해에 바탕을 둔 작품의 감상이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현대 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형성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소단원 (1)<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에서는 구체적인 작품이나 작가를 중심으로 하여 한국 현대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에 대해 개괄적으로 설명하였다. 그리고 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작품을 선정하여 시 3편과 소설 1편을 소단원에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가는 길>,<깃발>,<봄은>을 제시하였고, 소설로서 소단원 <운수 좋은 날>을 제시하였다.[41] 앞 소단원에서는 각 시대의 시 작품들을 감상하도록 구성되었고<운수 좋은 날>은 소설을 감상하기 위하여 설정한 작품이다.

<운수 좋은 날>은 1920년대 현진건의 소설이다. 이 소단원을 통하여 학생들은 1920년대 일제 강점 하 우리 민족의 비참한 삶의 모습을 발견하고 문학 작품이 당대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이해할 수 있게 한 작품이다. 이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읽기 전-중-후 및 생각 넓히기, 보충·심화의 문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교수·학습내용	차시
소단원(5)	읽기 전 활동-읽기 전에	· 앞으로 이어질 소설의 이야기를 예측해 보기	1~2
	읽기 중 활동	· 1920년대 우리의 사회적 상황을 생각하며 읽기	

41) 교육인적자원부 ,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3-1』,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3, 271면 참조.

		· 주인공 개인의 능력과 주어진 환경에 대해 생각하며 읽기 · 주인공 감정이 어떻게 달라지는지를 생각하며 읽기	
	학습 후 활동-학습활동	내용학습 · 주인공이 이동하는 장소와 이에 관계된 사건을 통해 내용을 간추려 보기 · 사건에 따른 김 첨지의 감정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 보기 목표학습 · 1920년대의 사회상을 나타내는 단어 찾아보기 · 반어적 표현의 소설 제목과 내용 알아보기	
생각넓히기		· 김광균의 시 <데생>을 감상하고, 모더니즘 시의 특징 알아보기	
보충 · 심화	자기 점검	· 자기 점검을 통해 단원 학습 내용의 이해 정도와 활동의 수행 정도를 학생 스스로 평가하기	3
	활동1	·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을 읽고, 김유정 소설의 특징 알아보기	
	활동2	·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을 읽고, 시대적 배경 파악하기	
	활동3	· 작품에 나타난 사회상 파악하기	
한자공부		·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한자어의 의미 파악하기	
이 단원을 마치며		· '이 단원을 마치며'를 읽고, 단원의 학습 내용과 활동을 정리하기	

<표5> 단원 전-중-후의 '학습활동' 문항

3.2.1. 국어과 성격 및 교육목표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국어과의 성격을 밝히면서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심미적인 정서를 기른다고 말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어 문화를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하면서 사랑하는 태도를 길러 성숙한 문화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는 것이다.[42] 따라서 우리 한국 현대문학

의 역사적 전개 과정이라는 지식을 설명문으로 제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각 시대별 대표 시와 소설을 소단원으로 제시한 이 단원은 제재 선정과 구성에 있어서 국어과의 교육목표와 성격을 잘 반영한 단원이다. 한국현대 문학을 바르게 이해하고 애정을 갖는다는 학습목표 역시 국어과의 교육목표 및 성격과 일치한다고 할 수 있다.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적 흐름을 통해 사회·문화와 소통하고 대화하는 문학의 본질을 이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인간의 삶을 이해하고 심미적 정서를 기를 수 있기 때문이다.

'학습활동' 문항제시 면에 있어서 앞에서 언급한 국어과 교육목표와 성격을 잘 드러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읽기 중 활동 : 1920년대 우리의 사회적 상황을 생각하며 읽기
주인공 개인의 능력과 주어진 환경에 대해 생각하며 읽기
* 보충·심화 :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을 읽고, 김유정 소설의 특징 알아보기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을 일고, 시대적 배경 파악하기

이 단원에서는 <운수좋은 날>이라는 소설 제재를 통해 중심내용과 사회상을 파악하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문학학습은 문학 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고 토론하는 활동을 통해 작품에 나타난 인간의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고 문학적 상상력이 향상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원에서 지향되어야 할 활동은 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을 이해하고 교과서에서 제목만 언급되어 있는 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는 활동, 그리고 사회적·문화적 배경이 동일한 동시대의 다른 작품을 찾아 읽고 토론해 보는 '학습활동'이다. 이러한 활동이 제시되지 않은 것은 7차 교육 과정에 제시한 국어과의 교육목표[43]에 따르면 언어활동과 문학에 대한 기본적 지식을 제공하는 차원

42) 교육인적자원부,『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 국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3면 참조.

에 그칠 뿐, 이를 활용하여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 활용하고 흥미를 가진 부분에 대해 계속적인 탐구를 지향하는 국어과의 궁극적인 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한계점을 가진다.

3.2.2. 국어 교과서의 기본 방향

교과서의 하위 구성 요소인 '학습활동'이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을 어떻게 반영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단원은 첫 번째 소단원에서 배웠던 한국문학의 흐름에 관한 지식을 토대로 <동백꽃>과 <오발탄>과 같이 우리 문학사에서 중요한 위치에 놓인 작품을 통해 우리 현대 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해하고 학습자의 관심과 애정을 유도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학습자가 한국 현대 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해하고 관심과 애정을 지닐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제시된 활동들이다. 학습목표와 제재의 구성은 교과서의 편찬의도 중에서도 '지식, 기능, 태도를 효과적으로 정리해 주는 교과서'라는 방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한국현대문학의 흐름에 관한 설명문과 주요 문학작품, 그리고 이를 효과적으로 학습하기 위한 활동들을 통해 궁극적으로 학습자의 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도 하고 있으므로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깨달음을 이끌어 주는 교과서'라는 방향을 특히 잘 반영하고 있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위의 두 방향을 특히 잘 드러내고 있는 활동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읽기 중 활동 : 1920년대 우리의 사회적 상황을 생각하며 읽기
* 보충·심화 : 김유정의 소설 <동백꽃>을 읽고, 김유정 소설의 특징 알아보기
  이범선의 소설 <오발탄>을 읽고. 시대적 배경 파악하기

---

43) 교육인적자원부, 『제 7차 고등학교 교육과정해설-국어』,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1, 20면 참조.

한계점은 다음과 같다.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깨달음을 이끌어 주는 교과서’라는 교과서 편찬의 기본방향을 이 단원의 학습목표와 연관 지어 생각해본다면 교과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학작품들을 학습자가 한국 현대 문학의 역사적 흐름에 맞게 배열시켜보는 활동을 제시하는 것이 더욱 적절했을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학습자가 사회·문화와 소통하는 문학의 성격과 역사적 흐름을 정리하는데 효과적일 것이라 여겨진다.

또한 보통 학습자들이 문학사적 지식과 자신에 접해보지 못한 문학 작품에 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강조’라는 편찬 방향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조금 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 할 수 있는 ‘읽기 전 활동’을 제시했어야 했다. 이 단원의 설정 취지 및 목표가 문학작품이 만들어진 사회적·문화적 배경 이해를 통해 한국 문학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므로 이 부분과 ‘읽기 전 활동’의 목적을 함께 고려한 문항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활동이 문학작품의 사회적·문화적 배경지식을 제공하면서도 학생들의 흥미와 동기를 유발할 수 있어야 한다. 이 같은 내용을 반영하여 문항의 예를 들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운수 좋은 날>과 같은 시대적 배경의 영화나 드라마의 한 부분을 사진자료로 제시하거나 한국문학의 역사적 흐름을 노래로 만든 가사를 제시하는 활동이 그 예이다. 영상과 사진에 익숙한 세대인 학습자들이 사진을 보거나 노래를 직접 불러보면서 <운수 좋은 날>을 비롯한 문학작품의 문화적·역사적 배경을 흥미로우면서도 어렵지 않게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3.2.3. 대단원의 학습 목표

대단원의 학습목표는 앞에서 제시했듯이 ‘한국 현대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와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이다. ‘현대문학의 역사적 흐름 이해’라는 인지적 영역과 정의적 영역이

적절히 조화된 학습목표이다. 그러나 정의적 영역인 두 번째 학습목표를 구체적 활동으로 제시하거나 이를 평가하는 것은 인지적 영역의 평가보다 불확실한 결과를 얻을 가능성이 크고 오랜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구성과 '학습활동'의 문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 것이 이 단원의 '학습활동' 구성의 문제점이라고 볼 수 있다.

읽기 전의 소설 내용을 예측하는 활동, 읽기 중의 내용 파악 활동, 학습 후의 사건을 중심으로 내용을 간추리는 활동, 사건에 따른 주인공의 감정 변화, 당시의 상황을 나타내주는 말을 찾는 활동 등 전반적인 활동이 단원의 두 번째 학습목표를 달성하기에 부족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한 '학습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학습 전 전·중·후에 걸쳐 학습목표를 인지하고 단원의 핵심을 파악한다고 보았을 때 이는 큰 문제점이다. 교육과정과 단원의 설정취지에서 알 수 있듯이 이 단원에서 '한국 현대문학의 흐름'이라는 설명문과 시대별 대표 작품을 제재로 선택하여 감상하게 한 것은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작품을 능동적으로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따라서 이에 따른 활동이 필수적인 것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앞에서도 언급한 대로 스스로 관심을 가지는 현대문학의 제재를 직접 찾아보고 서로의 의견과 관심을 공유하는 활동이 적절하다고 보여 진다. 예를 들어 같은 시대의 주요 작품을 찾아보는 활동, 그동안 배웠던 문학작품을 현대문학의 흐름 속에서 배열하는 활동, 스스로 찾아본 문학작품을 포트폴리오로 정리하거나 독후감을 쓰는 활동을 통해서 스스로 한국 현대문학에 대해 자부심과 애정을 기를 수 있을 것이다.

3.2.4. 학습 전-중- 후 활동의 적절성

다음으로 살펴 볼 '학습 전-중-후 활동'의 적절성 및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이 단원에서 '읽기 전 활동'으로 제시한 것은

·<운수 좋은 날>을 처음부터 다섯째 문단까지 읽고, 다음 사항에 답하면서 이어질 내용을 예측해보자.
예 아니오
— — 김첨지는 많은 돈을 번다.
— — 김첨지는 오늘 번 돈을 다 술값으로 날린다.
— — 김첨지의 아내는 김 첨지가 돌아오기 전에 죽는다.
— — 김첨지는 돈을 벌어 아내를 병원에 입원시킨다.
— — 김첨지는 오늘 번 돈을 사기당한다.
— — 김첨지는 저녁에 설렁탕을 사 들고 집에 들어간다.

<보기18> '읽기 전 활동'

의 내용이다. '읽기 전 활동'은 배경지식을 조성하거나 활성화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토론의 장(forum)을 열어 글을 읽기 전에 글의 논점이나 내용에 대한 학생들의 느낌이나 반응을 이끌어내야 한다. 즉, '읽기 전 활동'은 읽기의 목적을 분명하게 해 주고, 호기심을 자극하며, 읽고 싶은 마음을 불러일으키는 것이다.[44] 그런데 이번 단원의 '읽기 전 활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은 소설을 끝까지 모두 읽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 확인 문제이다. 구체적인 내용을 읽기 전에 인력거꾼의 삶을 상상하는 것은 개인의 상상력이나 경험에 의해 조금씩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내용 확인 문제는 소설 제재를 학습하고 난 후 활동으로 적절한 문항이지 문항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처럼 소설의 앞부분만을 읽고는 답할 수 없는 문제이

44) 최병해·마운용 편저 , 『문학 및 문학 교육』, 들풀, 2007.

다. 예측하는 내용 확인 문항의 정답 유무에 크게 비중을 둔다 하지 않는다 하더라고 ‘읽기 전 활동’의 취지와 목적을 살펴보았을 때 적절하지 않은 문항이다.

앞의 소단원인 시 제재 보다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이 상관성 있게 반영되고 그리하여 한국 현대 문학의 모습을 능동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이 소설제재라고 할 수 있다. 소설 제재의 ‘읽기 전 활동’을 통해 우리는 학습동기를 유발할 수 있고 배경지식과 선수학습을 다시 상기시킬 수 있는데, 이번 단원에서 가장 바람직한 활동은 이 소설의 창작 시기와 배경이 비슷한 작품을 통해 <운수좋은 날>에 대한 배경 지식을 상기시키는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앞에서도 언급했듯이 단원의 설정 취지 및 목표가 문학작품이 만들어진 사회적·문화적 배경 이해를 통해 한국 문학의 역사적 흐름을 이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교과서의 기본방향과 관련한 ‘읽기 전 활동’논의 에서는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과 관련하여 사진, 영상자료, 노래를 제공하여 배경지식을 제공하는 활동을 예로 제시하였다. 학습자에게 배경지식을 제공하고 동기와 흥미를 유발한다는 ‘읽기 전 활동’의 목적과 다양한 문학작품을 감상하고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해한다는 이 단원의 성격을 고려한 활동의 예를 한 가지 더 제시해 본다면 다음과 같다. 소재와 창작시기가 비슷한 작품인 주요섭의 <인력거꾼>의 줄거리나 내용을 간단한 그림이나 만화로 소개하는 활동이나 직접 이러한 내용을 찾아보는 활동이다. 소설을 읽기 위한 배경지식을 제공할 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문학작품 감상의 감상을 통해 역사적·문화적 흐름을 이해한다는 단원의 성격에도 부합하는 활동이다. 뿐만 아니라 <운수 좋은 날>을 읽고 난 후에는 같은 소재와 시기로 만들어진 두 작품을 비교· 대조하면서 시대와 작가에 대한 이해를 폭넓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활동이라고 여겨진다.

또한 ‘읽기 전 활동’이므로 단순하게 줄거리를 제공하는 자료의 제공보다

는 흥미를 고려하고 학습자의 부담을 덜기 위해 만화나 사진 등의 자료로 제시한 등 자료의 제공방법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다.

‘읽기 중 활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들은 소설의 배경인 시대적 상황을 이해하고 주인공의 심정을 헤아려보게 하는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이 단원과 제재에서 주의를 집중시키면서도 의문을 가져보기에 적절한 질문들이다. 날개에서 제시하고 있는 문항들을 통해 시대적 흐름이 문학 속에 어떻게 반영되었는지를 살펴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학습목표를 달성과 내용 이해에 적절한 질문들로 이루어져 있다고 판단된다.

‘학습 후 활동’에서는 제재의 내용과 더욱 의미 있는 소통을 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주요사건을 요약한 후 주인공의 감정을 그래프로 그려보는 활동과 당시 사회상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보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읽기 전 활동’의 내용 예측 확인 문제가 문항의 내용상 ‘학습 후 활동’에 제시되었다면 더욱 적절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이 단원을 통해 당시 시대적 상황과 소통하는 현대문학의 흐름을 습득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사회상을 나타내는 단어를 찾아보는 활동도 ‘학습 후 활동’에서 정리되기 알맞은 부분이다. 다만 학습 후의 이러한 활동들이 전체적인 흐름을 갖고 이어지도록 당시 사회상속에서 소시민의 삶을 예상해보는 문항을 제시하거나 토의를 하게 했다면 학습자가 이 단원의 내용을 정리하고 마무리하기에 더욱 적절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3.2.5. 내용 · 목표 · 적용 학습의 적절성

‘학습 후 활동’의 '내용학습'에서는 주인공이 이동하는 장소와 사건에 따라 약 6부분으로 내용을 간추린 뒤 주인공의 심정 변화를 그래프로 나타내어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학습자가 글을 읽는 즐거움을 확인할 수 있고 작품과 더욱 진지하게 상호작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학습 후 활동’은 ‘내용학습’은 줄거리나 전체내용을 되새기는 활동이다. 그러나 줄거리를 간추려보는 단순한 문항이나 내용 확인 문항보다는 학습자가 방금 읽은 내용을 나름대로 의미를 가지고 흥미 있는 방법으로 활용할 수 있는 문항이 ‘내용학습’에 적절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단순히 내용요약에만 그치지 않고 주인공의 심정과 심리변화를 그래프로 그려보는 활동은 흥미로우면서도 인물과 사건의 흐름을 학습자가 심도 깊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내용이해와 학습자의 흥미를 모두 고려한 적절한 문항이라고 판단된다.

'목표학습'에서는 학습목표와 관련지어 이 단원을 세부적으로 이해하기 위한 활동이 제시되어야 한다. 이 단원에서는 <운수좋은 날>을 읽고 당시 사회상이 반영된 단어를 찾는 활동과 빈 칸 채우기 문항이 제시되어 있다. 이 단원의 목표가 한국 현대 문학의 역사적 전개과정을 이해하고 이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추는 것임을 상기시켜 봤을 때, 당시 사회의 가치관, 세태, 생활양식이 포함되어 있는 단어를 찾아보는 것은 작품의 사회적 배경인 1920년대를 파악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활동이다. 살고 있는 시대와 다른 모습을 찾아보는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문학과 사회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현대 문학의 흐름 속에서 1920년대가 지니는 의미와 모습을 체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목표학습’에서 문제점으로 판단되는 것은 두 번째 활동인데 구체적인 내용을 살피면 다음과 같다.

> 2.이 소설의 제목은 <운수 좋은 날>이지만, 이 소설의 내용은 운수가 나쁜 날이다.( )안에 알맞은 말을 넣어보자.
> 이 작품은 일제 강점기 하층민들의 ( )을/를( )수법으로 표현하고 있다. 제목 ‘운수좋은 날’은 가장 비극적인 날을 ( )으로 표현한 것이다. 이것은 외면적 행운 뒤에 비극적 결말이 준비되어 있다는 모순된 현실을 극적으로 제시한다.

<보기19> ‘목표학습’의 활동

문제집의 내용 요약 부분과 흡사한 이 문항의 설정 이유는 표제가 암시하는 행운과 서사적 사건 내용이 전혀 반대로 전개되는 특징을 학습자가 알게 하기 위해서이다. 그러나 이 문항은 학습목표를 세부적인 활동으로 인지하는 '목표학습'에서가 아니라 '내용학습'에서 정리해야 할 부분이며 '목표학습'의 성격과 맞지 않는 활동이다. 또한 과정과 활동이 중요시 되는 국어 교과서에서 이렇게 단편적이고 암기식 빈 칸 채우기 문제를 제시한 것은 앞에서 제시했던 교과서의 편찬의도와 괴리된 부분으로 여겨진다.

'적용학습'은 소단원과 관련된 내용을 직접 적용해보거나 학생 자신의 처지와 관련지어 생각해보는 활동이 제시되어야 하는데 이 단원에서는 제공하고 있지 않다. 한국 현대 문학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는 두 번째 학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학습자 스스로가 이 단원을 통해 가질 수 있었던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한 관심과 궁금증을 활동으로 실현할 수 있도록 '적용학습'이 있었다면 더욱 효과적이고 의미 있는 경험으로 학습자에게 자리 잡을 수 있었을 것이라 여겨진다. 뿐만 아니라 한국 현대문학에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는 두 번째 학습목표를 실현하는데 역시 기여할 수 있었을 것이라 예상된다.

3.2.6. 단원 구성요소의 통일성과 연계성

이 단원의 '보충· 심화'에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이 있다. ①번은 김유정의 <동백꽃>을 읽고 김유정 소설의 특징을 구체적인 작품으로 알아보는 '보충활동'이다. ②번은 이범선의 <오발탄>을 시대적 배경과 연관 지어 감상한 다음, 전후 소설의 특징을 설명하는 좀 더 심화된 활동이다. 2학년 때 배운 소설을 제재로 선택한 것은 전 학년과의 내용관련성을 높이고 학생들의 선수지식활용에도 유용하기 때문에 적절하다고 여겨진다.

'심화활동'은 1950년대 전쟁 직후의 모습이 잘 드러난 소설인 <오발탄>

을 감상하고 전후 소설의 특징을 이해하기 위한 것이다. 작품에서 그려지고 있는 사회적 배경과 시대적 배경에 주의하고, 등장인물들의 행동이나 가치에 주목할 수 있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전후 시대적 상황과 함께 전후 소설의 특징을 파악할 수 있다. 앞에서 제시한 작품들과 시대적 배경이 다른 작품을 제시하여 그동안 한국현대문학의 흐름에 대한 지식과 작품을 습득해 왔던 학습자가 새로운 시대적 배경 속의 작품을 통해 문학을 보는 안목을 기를 수 있을 것이므로 '심화활동'의 목적에도 알맞다. 특히 같은 소설 제재이기 때문에 소단원(5)의 <운수 좋은 날>과의 비교와 대조를 할 수 있다. 이 과정에서 문학사적 흐름을 이해하고 시대와 현실에 고뇌하는 작가와 인물에 대해 생각해 보면서 학습자는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단원에서 부족했던 현대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갖는다는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단원에서 대단원명과 학습목표, 소단원의 제재, '학습활동'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한국현대문학의 이해라는 대단원을 통해 현대문학의 역사적 흐름이해와 문학 감상을 하고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한 애정과 관심을 유도하고자 했던 단원의 설정 취지는 '한국 현대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적당했으나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의 대단원 목표를 실현하기 위한 활동을 찾기 힘들었다. 즉 '전-중-후'의 모든 활동 뿐 아니라 자기점검을 비롯한 '보충·심화'의 활동까지 첫 번째 학습목표를 초점에 두고 있었다. 물론 첫 번째 학습목표에 중점을 둔 활동을 통해 학습자들은 두 번째 학습목표를 성취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활동을 통해 구체적으로 학습자들이 내가 이 단원을 통해 성취해야할 목표가 무엇인가를 알려줄 수 있는 활동이 필

요하다. 그러나 전 과정을 거쳐 첫 번째 대단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대단원명과 학습목표, 소단원의 제재, '학습활동'이 모두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통일성과 연계성을 갖추는데 무리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자기 점검이 중요시 되는 생각 넓히기 및 '보충·심화'활동에서는 본문의 문학 작품보다 다양한 시대적 배경과 인물을 바탕으로 한 소설 제재가 제시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학습자가 시대 속에 고민하는 작가와 인물들과 함께 고뇌해보면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학습자를 안내하는 활동은 없지만 '보충·심화'의 내용을 통해 현대문학에 대한 학습자의 폭넓은 감상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어느 정도 이 목표를 달성한다고 말할 수 있겠다.

이 단원은 전체적으로 많은 지식과 문학 작품을 학습자에게 소개하는 단원으로서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통일성과 연계성에 문제점이 없었다. 하지만 이 단원의 설정취지와 교육과정의 내용을 살펴봤을 때 이 단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현대 문학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것임을 고려 할 때 이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기 위해 학습자를 유도하고 안내하는 활동이 부족했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이러한 목표를 인지할 수 있는 활동도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3.3. 고전 문학의 감상-<박씨전>

이 단원은 고전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 속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특질과 우리 민족의 사상, 정서, 삶의 태도를 이해하는 것이다. 전체 네 개의 소단원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국 문학의 특질에 대해 연역적으로 학습한 다음, 고전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그 속에 담긴 한국 문학의 특질

과 우리 민족의 사상과 정서를 이해하도록 하였다. 첫 번째 소단원인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에서는 1·2학년 때 배운 옛 이야기를 떠올리면서 이야기 속에 담긴 선인들의 태도를 생각해 보고,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파악한다. <가시리>와 세 번째 소단원인 <시조 두 편>에서는 고려 가요와 시조를 감상하고 시가 문학 속에 나타난 한국 문학의 특질을 찾아본다. 네 번째 소단원인 <박씨전>에서는 병자호란에 대한 역사적 배경 지식을 가지고 작품을 감상한 다음, 작품 속에 반영된 우리 만족의 사상과 삶의 방식을 생각해 보는 학습 활동으로 구성되었다.[45]

전 학년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은 다음과 같다.

· 작품의 사회적, 문화적, 역사적 상황에 나타난 그 시대의 가치를 이해하려는 태도를 지닌다.(문학, 중1-1, 7대단원) · 작품에 드러난 우리 민족의 전통이나 사상을 비판적으로 수용하는 태도를 지닌다. (문학, 중2-1, 3대단원)

<보기20> 전 학년 학습 내용과의 관련성

단원의 설정 취지 및 목적은 교육과정을 통해서도 알 수 있다.

[9-문-(1)]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안다. 【기본】◦ 한국 문학과 한국 문학이 아닌 것을 구분하는 기준을 말한다. 【심화】◦ 심화 활동은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작품을 예로 들어가며 설명한다.

<보기21> 교육과정의 내용

<박씨전>은 작가, 연대 미상인 조선 시대의 고전 소설이다. 이 작품은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시대적 배경으로, 박씨라는 가상 인물을 설정

45) 교육인적 자원부, 『국어·생활국어 교사용 지도서 3-2』,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1999, 235면 참조.

하여 현실적인 패배와 고통을 이야기 속에서 복수하고자 하는 민중의 심리적 욕구를 표현한 작품이다. 특히, 박씨는 초인적인 능력을 가진 비범한 인물로 그리고 있는데 비해, 남편인 이시백은 평범한 인물로 표현하고 있으며, 여성도 남성 못지않게 우수한 능력을 갖추고 있어 국난을 타개할 수 있다는 의식을 반영한 작품이다.[46]

소단원 (2),(3),(4)에 제시된 고전 문학 작품은 소단원 (1)에서 학습한 한국 문학의 특질이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지 살펴보기 위한 작품들이다. 그러므로 고전 문학 작품을 감상하면서 소단원(1)에서 학습한 내용을 참고로 작품 속에 드러난 우리 문학의 특질을 찾아보도록 하는 것이 좋다.

소단원 (2),(3)에서는 우리 시가 문학을 감상하고, 그 작품 속에 드러난 한 국 문학의 특질을 살펴보는 활동을 했다. 소단원 (4)에서는 고전 소설인 <박씨전>을 삼상하고, 산문 문학에 나타난 우리 문학의 특질을 살펴보게 될 것이다. 문학은 그 시대의 사회, 종교, 문화, 사상 등을 반영한다. 특히, 소설은 그 시대의 모습을 구체적이고 사실적으로 드러낸다. 고전 소설 <박씨전>을 감상하면서 작품 속에 드러난 우리 문학의 특질 외에 소설에 반영된 우리 선인들의 가치관, 삶을 바라보는 태도 등에 대해 생각해 보도록 해야 할 것이다.[47]

첫째, 한국 고전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설명할 수 있다.
둘째, 고전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

<보기22> 대단원 학습 목표

---

46)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 지도서 3-1』, 대한교과서 주식회사, 2003, 258면 참조.

47)앞의 책, 257면 참조.

이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읽기 전-중-후 및 생각 넓히기, 보충·심화의 문항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구분		교수·학습내용	차시
소단원(4)	읽기 전 활동-읽기 전에	· '병자호란'에 대해 이야기하기	3~5
	읽기 중 활동	· 한국 문학의 특질을 생각하며 읽기 · 인물들의 행동과 심정을 상상하며 읽기 · 작품 속에 드러난 우리 선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생각하며 읽기 · 날개 질문의 답을 찾아가며 읽기	
	학습 후 활동-학습활동	내용학습 · 소설의 주요 사건을 기사문 형식으로 정리하기 목표학습 ·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하면서 한국 문학의 특질 설명하기 · 작품 내용에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 찾아보기 · 역사적 사실과 소설이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보충·심화	자기 점검	· 자기 점검을 통해 단원 학습 내용의 이해 정도와 활동의 수행 정도를 학생 스스로 평가하기	6
	활동1	· 두 작품을 읽은 후 자연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살펴보고, 한국 문학의 특질 찾아보기	
	활동2	· 고전 소설 <운영전>을 읽고, <춘향전>과 비교하기 · <박씨전>의 일부분을 현대어로 다시 써보기	
	활동3	· 한시를 감상하고, 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 써 보기	
한자공부		· 한자의 음과 뜻을 알고 한자어의 의미 파악하기	
이 단원을 마치며		· '이 단원을 마치며'를 읽고, 단원의 학습 내용과 활동을 정리하기	

<표6> 단원 전-중-후의 학습활동 문항

3.3.1. 국어과 성격 및 교육목표

제 7차 교육과정은 국어과의 성격을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길러, 정보화 사회에서 정확하고 효과적으로 국어 생활을 영위하고, 미래 지향적인 민족의식과 건전한 국민 정서를 함양하며, 국어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뜻을 세우게 하기 위한 교과'로 규정[48]하고 있다. 이번 단원은 앞부분에서 밝히고 있는 국어과의 성격을 반영하고 있기 때문에 제재의 선택과 이에 따른 활동이 국어과의 성격과 목표를 잘 실현하고 있는 단원이라고 말 할 수 있다. 한국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밝힌 설명문과 고전 작품을 통해 한국인과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 학습자가 창의적인 국어생활을 할 수 있다. 또한 이는 7차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향[49]을 살펴보았을 때 국문학의 특성을 체득하고 그에 따른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활동, 고전소설을 현대어로 재창작해보는 활동 등을 통해 특히 앞의 두 방향을 잘 실현하고 있는 활동으로 이루어진 단원이라고 할 수 있겠다.

① 학습자의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배양을 중시하는 교육과정
② 학습자의 의미 있는 학습 경험을 중시하는 교육 과정
③ 교육 내용의 사회적· 개인적·학문적 적합성을 추구하는 교육과정
④ 국어 교육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교육 과정의 구성

<보기23>7차 교육과정 구성의 기본 방향

또한 이는 제 7차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국어과의 교육목표 중 '언어활동과 언어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익혀, 이를 다양한 국어사용 상황에

48) 앞의 책, 3면 참조.

49) 앞의 책, 8면 참조.

서 활용하는 능력을 기른다.'와 '국어 세계에 흥미를 가지고 언어 현상을 계속적으로 탐구하여, 국어의 발전과 국어 문화 창달에 이바지하려는 태도를 기른다.'의 목표를 달성하기위해 필요한 제재와 활동으로 구성된 단원이라 판단된다. 이를 특히 잘 드러낸 활동은 다음과 같다.

* 읽기 중 활동 : 작품 속에 드러난 우리 선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생각하며 읽기
* 학습 후 활동 :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하면서 한국문학의 특질 설명하기
  역사적 사실과 소설이 다른 이유를 생각해보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친구들과 이야기해보기

3.3.2. 국어 교과서의 기본방향

<박씨전>과 같은 고전문학 작품은 학습자가 옛 시대의 산물이라고 생각하여 현재의 자신의 삶과는 동떨어져서 고리타분하고 어려운 옛글로 지어진 문학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기 쉽다. 그래서 고전 문학 작품은 학습자에게 있어 당대의 삶과 정서를 이해하면서도 오늘의 관점에서 재해석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 그래서 이 단원에서도 학습목표를 '고전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로 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 단원에서는 <박씨전>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병자호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읽기 전 활동'으로 제시되어 있다. 이 활동은 문학작품을 읽기 전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학생들이 고전문학에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선입견을 관심과 흥미로 전환시켜 동기유발을 하는데 까지는 나아가기 힘든 문항이라고 판단된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교과서'라는 교과서의 기본방향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과서’라는 방향과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교과서’라는 부분은 잘 달성하고 있는데 그러한 활동을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읽기 중 활동 : 작품 속에 드러난 우리 선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생각하며 읽기
* 학습 후 활동 : 소설의 인물, 사건, 배경을 정리하면서 한국문학의 특질 설명하기
  작품 속에서 역사적 사실과 다른 부분 찾아보기
  역사적 사실과 소설이 다른 이유를 생각해 보고, 그 속에 담긴 우리 조상들의 삶의 방식을 친구들과 이야기하기
* 보충 ·심화 : 고전 소설 <운영전>을 읽고, <춘향전>과 비교하기
  <박씨전>의 일부분을 현대어로 다시 써보기
  한시를 감상하고, 시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 써 보기

기본적으로 교과서의 제재선택과 내적구성이 앞에서 제시한 교과서 편찬의 기본방향을 충실하게 이행하고 있지만 이번 단원에서는 특히 위의 세 방향이 잘 드러나 있다고 여겨진다.

3.3.3. 대단원의 학습목표

이 대단원의 '학습활동'은 문학의 특질을 단순 설명하거나, 고전 문학을 현대어로 풀이하는 수준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이렇게 되면 학생들은 고전 문학을 어렵게 여겨 흥미를 잃을 수 있고, 작품 또한 올바르게 감상할 수 없게 된다. 이 단원은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이해하고 고전 문학 작품을 감상하는데 그 목적이 있으므로, 이러한 부분들이 '학습활동'을 통해 실현되고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 이 단원에서는 ‘한국 고전 문학의 개

념과 특질을 설명할 수 있다.'와 '고전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를 대단원의 학습목표로 삼고 있다. '읽기 전에', '날개', '내용 · 목표 · 적용 활동', '생각 넓히기', '보충·심화- 자기 점검 '이 활동의 시기와 성격에 상관없이 이 모든 활동은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라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 단원의 활동을 살펴봤을 때 모든 활동들이 첫 번째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보충·심화 활동'에서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항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학습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한편의 완성된 글을 쓰는 활동이 아니라 단편적인 생각과 느낌을 적는 문항이므로 학습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기에 통일성을 갖춘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대단원의 목표 중 하나의 목표를 달성하는데 비중을 두고 있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여겨진다.

3.3.4. 학습 전-중-후 활동의 적절성

다음으로 살펴볼 '학습 전-중-후 활동'의 적절성 및 연관성은 다음과 같다. 이 단원의 '읽기 전 활동'에서는 이 작품이 병자호란이라는 역사적 사실을 배경으로 사건이 전개되므로 작품에 대한 선행 지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이 흥미를 가지고 작품을 읽도록 하고 있다.

1636년, 후금은 국호를 청이라고 고친 뒤, 조선에 대해 '군신의 예'를 강요하고, 막대한 액수의 예물을 요구했다. 그러나 인조가 그들의 요구를 들어주지 않자, 청 태종은 1936년 12월 29일, 직접 군사를 이끌고 조선에 쳐들어 왔다..... 마침내 인조는 삼전도로 나아가 항복의 예를 치렀고, 청나라 태종은 소현 세자와 봉림 대군을 인질로 하는 한편, 척화파의 주모자를 묶어 청나라로 돌아갔다. 이로써 전쟁은 막을 내렸다.

<보기24> '읽기 전 활동'의 자료

제시된 자료는 병자호란에 관한 짧은 역사적 사실을 요약해 놓은 글로써 역사적 지식이 너무 간략하게 소개되고 있다는 점이 약간의 한계로 남지만, 소설의 역사적 배경을 대략적으로 이해하는데 무리가 없다. 또한 글을 읽고 학생들에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전쟁이 우리 민족에게 끼친 영향, 전쟁의 동기, 전쟁의 피해, 극복 방향 등 다양한 논의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읽기 전 활동' 목적을 비롯하여 이러한 역사적 사실을 제공하는 것이 선행지식을 제공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유발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 볼 필요가 있다. 단순하게 짧은 역사적 사실을 제시하는 방법보다는 통합 교과서적인 측면에서 국사 교과서의 부분을 인용하여 학습자 스스로가 국사교과서를 비롯해 다양한 매체를 통해 병자호란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찾아보는 활동을 유도했다면 더 적절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읽기 중 활동'에서는 인물들의 행동과 말에 주의하여 소설을 읽으면서 사건의 흐름을 정리할 수 있도록 날개부분에서 적절한 질문을 하고 있다.

· 박 소저의 인물됨은 어떠한가?
· 계화는 박 소저를 어떻게 바라보는가?
· 박 소저가 어떤 방법으로 본가에 갈지 상상해 보자.
· 박 소저에게 어떤 변화가 일어날지 추측해 보자.
· 박 처사는 어떤 사람임을 알 수 있는가?
· 박 소저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짐작해 보자.
· 설중매로 인하여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 지 상상해 보자.
· 설중매가 이시백을 찾아온 이유가 무엇일지 생각해보자.
· 박 소저의 말에 담긴 작가의 의도를 생각해 보자.

<보기 25> '읽기 중 활동'

'읽기 중 활동'의 날개부분에서의 질문은 사건의 전개에 따른 인물의 행동과 심정을 파악하기에는 적절한 질문이다. 그러나 이 단원의 학습 중 활동이 의도하고 있는 나머지의 내용, 즉 '한국 문학의 특질을 생각하며 읽기'와 '작품 속에 드러난 우리 선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생각하며 읽기'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 이 단원의 학습 목표가 한국 고전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알고 이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말할 수 있는 것이라고 정리해 본다면 학습 중 활동에서 학습자가 자신이 달성해야 할 학습 목표와 그 내용을 인지할 수 있도록 이에 적절한 질문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예를 들어, '글을 읽으면서 현대와는 다른 삶의 방식이 드러난 부분을 찾아보자.' 라거나 ' 이 사건이 현대에 온다면 어떻게 변형될 수 있을까에 대해 생각해보자.', 또는 '올리버트위스트와 비교했을 때 우리 소설의 특징이라고 말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등을 질문했다면 이 단원의 활동과 제재가 의도하고 있는 바를 달성하기에 적절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학습 후 활동'에서는 소설의 주요사건을 기사문 형식으로 정리하고 <박씨전>의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에 드러난 문학의 특질을 설명하는 활동, <박씨전>의 작가가 소설을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쓴 이유를 생각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읽기 전 활동'에서 정리한 병자호란에 대한 지식을 참고로 역사적 사건과 다른 부분을 찾는 활동이다. 이는 '읽기 전 활동'과의 연관성도 긴밀할 뿐 아니라 소설을 읽은 후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적절한 문항이다. 또한 단원의 학습목표인 한국문학의 특질을 이해하고 전쟁을 극복하는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 그들의 가치관, 삶의 방식을 예상해 볼 수 있으므로 학습 후에 내용과 목표를 정리하기에 적절한 문항이라고 판단된다.

3.3.5. 내용 · 목표 · 적용학습의 적절성

이 단원의 '내용학습'에서는 <박씨전>의 내용을 생각하며 주요 사건을 기사문 형식으로 정리해보는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고전 문학에는 낯선 어휘와 문장들이 많기 때문에 학생들이 어려워 할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한 사건을 크게 네 가지로 정리해준 다음, 기사문 형식으로 그 내용을 정리해보는 활동이다. 단순하게 구성에 의한 줄거리를 요약해보라는 활동과 달리 색다른 방식을 통해 내용을 정리할 수 있게 하여 학생들의 흥미를 높일 수 있고 보다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신문기사의 형식을 빌려 참신하고 다양한 표제를 만드는 부분과 내용을 재구성하는 부분에서는 학생들의 창의력과 상상력을 발휘할 수 있으므로 아주 적절한 활동이라고 판단된다.

'목표학습'에서는 <박씨전>의 인물, 사건, 배경 등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에 드러난 한국문학의 특질을 설명해보는 활동이 제시된다. 앞의 첫 번째 소단원에서 제시한 설명문을 바탕으로 고전 소설에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한국문학의 특질이 나타나 있는지를 학습자 스스로 고민할 수 있는 문항이고 대단원의 첫 번째 학습 목표인 '한국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설명할 수 있다'는 목표를 달성하기에 좋은 활동이다.

두 번째 문항에서는 <박씨전>의 작가가 왜 소설을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썼는지 그 이유를 생각해보고 친구들과 이야기해보도록 하고 있다. 구체적인 문학작품을 통해서 우리 선인들이 병자호란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었으며, 패배의 감정을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살펴보면서 우리 조상의 가치관, 삶의 방식, 삶을 바라보는 태도를 알 수 있다. 앞의 첫 번째 문항에서 거시적인 질문을 했다면 두 번째 문항에서는 학습자에게 좀 더 자세한 안내를 하면서 학습자가 목표와 내용을 파악하기 쉽도록 구체적인 질문을 하고 있다고 말 할 수 있겠다.

두 문항이 모두 대단원의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적절하지만

두 번째 학습목표인 ‘고전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를 달성하고자 하는 활동을 제시하지 않은 것이 단원 내 구성의 큰 한계점이다. 이는 ‘목표학습’이 학습목표의 인지와 달성을 위한 세부적인 활동으로 제시되기 때문이다. 한국 문학의 특질에 관한 설명문과 몇 편의 작품을 통해 학습자는 스스로 느끼고 생각한 바가 있을 것이다. 조상들의 모습을 통해 얻게 된 오늘의 현실을 살아가는 지혜라든지, 세계문학 속에서의 우리 고전작품의 위상에 대한 생각이라든지 학습자는 작품과 직접 소통하면서 자신만이 느끼는 다양하고 특별한 생각을 정리할 활동이 필요하다. 이런 활동을 통해 학습자는 우리 민족의 삶을 깊이 이해하고 우리 고전문학에 대한 애정을 가져 즐겨 읽고자하는 태도를 기를 수 있을 것이라고 여겨진다. 이 단원에서는 ‘학습 후 활동’에서의 ‘적용학습’을 제공하고 있지 않은데 두 번째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적용학습’과 관련지어 학습자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활동이나 이 단원을 통해 학습자가 가지게 된 한국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조금 더 발전적인 방향으로 모색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학습자에게 고전문학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고 표현하게 하는 활동 등을 제시했다면 이 단원이 가지는 설정 취지와 목표를 더욱 잘 실현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진다.

3.3.6. 단원 구성요소의 통일성과 연계성

이 단원의 ‘보충·심화’에는 크게 두 가지 활동이 있다. 활동①,②번의 1은 시가 문학과 고전 소설을 감상한 다음, 작품 속에 드러난 한국 문학의 특질을 살펴보거나 고전 소설을 현대어로 다시 써 보는 ‘보충활동’이다. ②번의 2와 ③번은 고전 소설과 시가 문학을 감상하고, 작품에 대한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적어보는 ‘심화활동’으로 자기점검을 바탕으로 학습자에게 알맞은 활동을 선택하여 이 단원의 학습을 마무리 하는 단계이다.

윤선도의 <만흥>은 전 6수로 된 연시조로 산중신곡(山中新曲)에 수록되어 있으며, 자연 속에서의 유유자적한 삶을 노래하고 있다. 신석초의 <삼각산 밑에서>는 자연의 품에 그리움과 아쉬움 모두를 담아 두고 살아가고 싶은 소망을 표현한 작품으로 자연을 대하는 말하는 이의 태도를 통해 한국 문학의 특질을 찾아보는 활동이 제시된다. 조선시대의 시조와 현대시를 동시에 감상한 후, 1의 활동을 참고하여 우리 시가 문학 속에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는 우리 문학의 특질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학습제재의 제시가 탁월한 문항이라고 판단된다. 또한 소단원(1)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의 내용 중 '자연친화의 문학'에 관해 설명하고 있으므로 내용의 통일성을 갖추면서도 앞의 제재와 활동에서 부족했던 부분을 '보충활동'에서 다시 되새기면서 학습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와 활동이라고 여겨진다.

활동[2]는 고전 문학을 학습할 때, 학생들이 생소하고 어려운 어휘와 문장 때문에 고전 문학이 어렵고 재미없다거나 오늘 날 별 가치 없는 문학이라는 선입견을 가지게 되는 것을 막기 위해 마련된 활동이다. 고전문학도 우리에게 친숙한 언어로 읽힐 수 있으며, 옛 사람들도 현대 사람들과 비슷한 정서와 감정을 가졌음을 이해하도록 하기 위함이다. 고전 소설 <운영전>을 현대어로 다시 쓰는 이 활동은 김진사와 운영의 슬픈 사랑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작품을 감상한 뒤, <박씨전>의 일부분을 학생들 자신의 언어로 풀이해보는 활동을 통해 학생들이 능동적으로 고전문학을 감상하고, 고전문학에 더 친숙해질 수 있다. 활동의 목적과 취지는 국어과의 목표뿐 아니라 학습자의 의미 있는 국어 학습을 위한 다는 목적에 알맞다. 생각해 봐야할 부분은 이 활동이 자기 점검 후 부족한 학습내용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보충활동'의 성격에 부합하지 않는 다는 것이다. 고전문학에 대한 흥미는 이끌어 줄 수 있겠지만 이 활동이 가지는 성격은 고전문학을 현대어로 다시 쓰면서 작품을 적극적으로 감상할 수 있고, 자신만의 생각과 느낌을 통해 새로운 해석과 다양한 상황을

연출할 수 있는데 더욱 비중을 두고 있다. 이러한 활동은 그동안 한국문학의 개념과 특질에 대해 다양한 정보를 습득한 학습자가 학습 후 창의성과 의미 있는 경험으로의 발전을 위해 차원에서 '학습 후 활동'의 '적용학습'에서 이루어졌다면 더욱 적절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②의 두 번째 문항인 <운영전>에서 김진사와 운영이 어떻게 만나서 사랑하게 되는지 과정을 알아보고 <춘향전>의 사랑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해보는 활동은 아주 적절한 '심화활동'이다. 고전 문학이라고 하여 구태의연한 내용만을 다루거나, 현대의 삶과 관련이 없다는 학습자의 선입견을 없애기 위해 학생들의 관심이 높은 사랑을 소재로 한 소설을 선택했다. 그 속에 포함된 선조들의 삶의 모습과 한국문학의 특질을 직접 찾아보게 하는 과정을 학습자에게 제시한 것이다. 이 단원을 배움으로써 느끼고 습득할 수 있었던 지식과 생각을 한정시키지 않고 친숙한 소설과의 연관성을 통해 더욱 발전적인 학습이 되도록 방향을 설정해 주는 적절한 활동이라고 여겨진다.

③의 활동에서 제시하고 있는 작품은 <적성촌에서>라는 한시로 이 작품에서는 소단원 (1) '한국 문학의 개념과 특질'에서 거론하지 않은 우리 문학의 특질을 담고 있기 때문에 학습자가 그동안 배웠던 설명과 지식의 틀에서 벗어나 스스로 한국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찾아볼 수 있는 확장적 사고를 요구하는 활동이다. 그동안의 학습을 잘 수행한 학습자가 발전된 단계로 나아가기 위한 효과적인 활동이라고 할 수 있다. 이 활동은 현실의 문제점을 적나라하게 표현하고 있는 시를 감상하고, 현대의 삶과 비교하면서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해보기 위한 활동으로 대단원의 두 번째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활동이지만 '심화활동'은 자기점검을 통해 선택 할 수도, 하지 않을 수도 있기 때문에 '목표학습'이나 '적용학습'에 구성되었다면 더욱 적절했을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체계성을 갖춘 한편의 글로 나타내는 것이 최종 목적이 아니라 단편적인 생각이나 느낌을 적는 활동이기 때문에 완전하게 대단원의 두

번째 학습목표를 달성하기에는 부족한 활동이라고 판단된다.

위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이 단원에서 대단원명과 학습목표, 소단원의 제재, '학습활동'의 통일성과 연계성을 살펴본다면 다음과 같다. 고전문학의 감상이라는 대단원을 통해 학습자의 사회적, 문화적 체험을 유도하고자 했던 단원의 설정 취지 및 목표는 한국 고전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고전 문학의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단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 단원을 걸쳐 두 번째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나 활동을 찾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학습활동'의 '전-중-후'의 모든 활동 뿐 아니라 자기점검을 비롯한 '보충·심화'의 활동까지 첫 번째 학습목표를 초점으로 둔 문항은 찾을 수 없었다. '보충 · 심화' 활동에서 두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문항이 제시되기는 하지만 학습목표에서 제시하고 있는 것과 같이 완성된 글을 쓰는 활동이 아니기 때문에 부족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전 과정이 첫 번째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고 '심화활동'에서 <운영전>을 현대어로 다시 써 보는 활동 등의 내용구성이 '심화활동'보다는 '학습 후 활동'의 '적용학습'에 더 어울리는 등 내용구성에 있어서 문제점이 판단된다.

이 단원은 고전문학작품을 통해 한국문학의 특질과 개념을 학습자가 습득하는 단원으로서 첫 번째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통일성과 연계성에 문제점이 없었다. 그러나 이 단원의 취지와 교육과정의 내용, 학습목표를 살펴봤을 때 중요한 부분이 학습자가 습득한 한국 고전문학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표현하는 활동이다. 하지만 이를 구체적으로 표현하는 활동이 부족했기 때문에 단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다고 판단된다. 이를 위해 '학습 후 활동'의 '적용학습'에서 이를 실현할 수 있는 활동이 필요하다.

4. 9학년 소설 단원 '학습활동'의 문제점

이상으로 9학년 국어과의 소설단원의 '학습활동'을 6가지의 분석기준을 통해 분석해 보았다. 소설 제재 3편의 분석 결과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원미동 사람들>은 문학작품 읽기를 통한 사회적·문화적 경험을 습득하고 실천한다는 점에서 단원의 취지와 활동들이 국어과 교육목표를 달성하고 있다. (분석기준①) 또한 영상 매체 세대인 학습자들에게 독서와 흥미를 유발하기 위해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강조'가 특히 중요했던 이번 단원에서는 전 학년에서 배웠던 <소나기>와 <옥상의 민들레꽃>을 통해 비슷한 경험을 이야기해봄으로써 국어교과서의 편찬방향(분석기준②)을 잘 반영하고 있다. 한계로 여겨지는 부분은 읽기 전의 소설제재와 <원미동 사람들>이 학습자들이 경험하지 못한 사회적, 문화적 배경을 다루고 있기 때문에 쉽게 문학과 삶의 관련성을 느낄 수 있는 활동을 제시했다면 국어과 교과서의 편찬 방향을 더욱 잘 드러낼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 단원에서는 특히 문학적 대화를 통해 학습자가 문학속의 삶과 자신의 삶을 성찰할 수 있는 활동이 많은데 그러한 점에서는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깨달음을 이끌어 주는 교과서'의 방향도 달성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이러한 학생의 깨달음을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과서'의 부분까지 나아갈 수 있도록 하는 활동이 없다는 것이 이 단원의 한계점이다.

대단원의 학습목표(분석기준③)는 '첫째,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음을 알 수 있다. 둘째, 작품에 나타난 사회적, 문화적 상황을 창작 동기와 관련지어 설명할 수 있다.'이다. 그런데 두 번째 문항과 달리 첫 번째 문항은 작품을 통해 사회적, 문화적 배경, 그리고 작가의 사회적 동기를 고려

하며 읽는 적극적 문학읽기를 권장하는 이 단원의 설정 이유 및 교육과정의 내용과 괴리되었다고 판단된다. 이에 따라 ‘학습 후 활동’에서 이를 달성하기 위한 문항 역시 다른 문항들과 연관성이 떨어진다.

학습 전-중-후 활동의 적절성(분석기준④)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읽기 전과 중의 활동은 시기별, 내용별로 적절한 단원이다. 학습자가 인물들의 삶과 행동에 이입되어 그 이유를 생각해보도록 유도한다는 특징적인 문항이 제시되어있는 ‘학습 후 활동’은 문항의 제시에 있어서 빈칸 채우기 방법을 제시하고 있고 빈칸의 답이 내용파악에 있어서 중요하지 않다는 점이 한계로 여겨지지만 전체적으로 교육과정의 내용과 학습목표를 달성하기에 큰 무리가 없다.

다섯 번째 기준(분석기준 ⑤)은 ‘학습 후 활동’ 내 내용 · 목표 · 적용 학습의 적절성이다. 이 단원의 '내용학습'은 문항의 설정 취지는 적절하지만 제시 방법에 있어서 문제점이 판단되는데 단선적이고 주입적인 내용을 빈칸 채우기를 통해 묻고 있다는 점이다. 빈칸 채우기라는 문항의 방법자체가 잘못 된 것이 아니라 ( )에 들어갈 답이 단순히 가게에서 파는 물건의 종류이기 때문에 내용 파악에 전혀 도움을 주지 못한다. '목표학습'에서는 첫 번째 대단원의 학습목표인 ‘읽는 이에 따라 글을 다르게 읽음을 알 수 있다.’가 이 단원의 설정취지와 내용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문항 설정에서도 문제점이 있고 학습자가 단원의 목표를 효과적으로 인지하기 위해 문항의 배열 순서를 바꾸는 것이 효과적이라고 판단되었다.

앞에서 살펴본 내용을 바탕으로 단원 구성요소의 통일성과 연계성(분석기준⑥)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 단원은 전체적으로 두 가지의 대단원의 학습목표 중 하나가 단원의 설정취지와 제재의 내용과 괴리됨으로써 전체적인 내용 및 문항 분석에 있어서 발견된 문제점의 원인이 되었다. 대단원의 학습목표는 단원을 구성하고 설정하는데 뿐만 아니라 학습자가 이해

하고 '학습활동'을 능동적이고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지표가 되기 되는데 그 역할의 중요성을 파악할 수 있는 단원이었다.

<운수좋은 날>은 문학에 대한 기본적인 지식을 바탕으로 문학 작품을 수용하면서 인간의 다양한 삶을 총체적으로 이해하는 능력과 심미적인 정서를 기르고자 하는 국어과의 성격에 부합하는 단원이다.(분석기준①) 그러나 문학에 대한 기본 지식을 제공하는 차원에서 그치고 이를 활용하는 활동이 부족한 점은 국어과의 교육목표에 있어 부족한 부분이다. 이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교과서에 제목만 언급되어 있는 작품을 스스로 찾아 읽고 토론해 보는 활동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같은 활동이 제시되지 않은 점이 한계로 남는다.

학습목표와 제재의 구성은 교과서의 편찬방향(분석기준②)중에서도 ‘지식, 기능, 태도를 효과적으로 정리해 주는 교과서’라는 방향을 잘 드러내고 있다. 또한 이 단원을 통해 학습자의 문학에 대한 관심과 애정을 유도 하고 있으므로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깨달음을 이끌어 주는 교과서’라는 방향을 특히 잘 반영하고 있는 활동들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보통 학습자들이 문학사적 지식과 자신에 접해보지 못한 문학 작품에 관한 선입견을 가지고 있음을 고려해 볼 때 ‘학생들의 학습동기 유발 강조’라는 편찬 방향을 잘 드러내기 위하여 조금 더 학습자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 할 수 있는 ‘읽기 전 활동’을 제시했으면 더욱 적절했을 것이다.

세 번째 기준은 대단원의 학습목표(분석기준③)이다. 대단원의 학습목표는 앞에서 제시했듯이 ‘한국 현대 문학의 역사적 전개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와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이다. 그런데 이 단원은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구성과 '학습활동'의 문항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는데 이는 이 단원의 '학습활동' 구성의 문제점이라

고 볼 수 있다. 이 단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해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작품을 능동적으로 찾아 읽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에 따른 활동이 필수적이다.

이 단원의 읽기 전, 중, 후 활동의 적절성(분석기준 ④)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이단원에서는 제시한 ‘읽기 전 활동’은 소설을 끝까지 읽어야만 알 수 있는 내용확인문제가 제시되어 있으므로 ‘읽기 전 활동’의 목적 및 내용에 적절하지 않다. ‘읽기 중’과 ‘학습 후의 활동’은 시기별로 적절한 문항을 담고 있다.

‘학습 후 활동’은 내용 · 목표 · 적용학습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각각의 성격에 맞는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분석기준⑤)이 단원에서 주목해야 할 부분은 '목표학습'이다. '목표학습'의 두 번째 문항은 이 단원의 표제가 암시하는 행운과 서사적 사건의 내용이 전혀 반대로 전개되는 특징을 빈칸 채우기의 방법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학습목표를 세부적인 문항으로 제시한다는 '목표학습'의 성격에 맞지 않고 내용의 흐름상 '내용학습'에 더욱 적절하다. 또한 이 단원에서는 두 번째 학습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적용학습'이 필요한데 제시하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이 단원은 ‘전-중-후’의 모든 활동 뿐 아니라 자기점검을 비롯한 ‘보충·심화’ 활동까지 첫 번째 학습목표를 초점에 두고 있었다.(분석기준⑥) 그러나 전 과정을 거쳐 첫 번째 대단원의 목표를 달성하는 데는 대단원명과 학습목표, 소단원의 제재, '학습활동'이 모두 제 역할을 다함으로써 통일성과 연계성을 갖추는데 무리가 없었다고 여겨진다. 하지만 이 단원의 궁극적인 목표가 현대 문학에 대한 학습자의 관심과 애정을 갖도록 하는 것임을 고려 할 때 이를 위해 관심과 애정을 갖기 위해 학습자를 유도하고 안내하는 활동이 부족했다. 또한 학습자 스스로 이러한 목표를 인지할 수 있는 활동도 부족했다는 점이 한계점으로 판단된다.

<박씨전>은 고전문학작품을 감상하면서 작품 속에 드러난 한국문학의 특질과 우리 민족의 삶의 태도를 이해하도록 하는 단원이다. 한국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밝힌 설명문과 고전문학작품을 통해 한국인과 조상들의 삶과 문화를 이해할 수 있는 이 단원은 '한국인의 삶이 배어 있는 국어를 창의적으로 사용하는 능력과 태도를 기른다.'는 7차 교육과정에서 국어과의 성격을 잘 반영하고 있다.(분석기준①)

교과서의 기본방향(분석기준②)를 살펴보면 이 단원에서는 <박씨전>의 시대적 배경이 되는 병자호란에 대해 이야기해보는 '읽기 전 활동'이 제시되어 있다. 이 활동은 문학작품을 읽기 전 배경지식을 활성화하는 부분에서는 효과적이지만 학습자에게 고전문학에 대한 선입견을 극복하고 동기유발을 일으키기에는 부족한 문항이다. 그런 점에서 '학생들의 학습동기를 유발하는 교과서'라는 교과서의 기본방향을 실현하기에는 부족함이 있다고 여겨진다. 그러나 '학생의 창의성을 강조하는 교과서'라는 방향과 '학습 과정에서 학생의 깨달음을 이끌어주는 교과서'라는 부분은 잘 달성하고 있다고 여겨진다.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분석기준③)를 살펴보면 '한국 고전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설명할 수 있다.'와 '고전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의 학습 목표 중 모든 활동들이 첫 번째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내용 구성의 문제점이 발견되었다.

다음으로 학습 전-중-후 활동의 적절성을 살펴보기로 한다(분석기준④). 병자호란에 관한 짧은 역사적 사실을 요약해 놓은 글을 제시한 '읽기 전 활동'은 국사교과서나 다른 매체를 통해 더욱 자세하게 설명했으면 좋았을 것이라는 아쉬움이 남지만 소설을 읽기 전의 배경지식이해에는 무리가 없으므로 적절하다. '읽기 중 활동'의 날개부분에서의 질문은 사건의 전개에 따른 인물의 행동과 심정을 파악하기에는 적절한 질문이다. 그러나 단원의 학습 중 활동이

의도하고 있는 나머지의 내용, 즉 ‘한국 문학의 특질을 생각하며 읽기’와 ‘작품 속에 드러난 우리 선인들의 삶의 방식과 태도를 생각하며 읽기’를 파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이 한계이다. ‘학습 후 활동’에서는 소설의 주요사건을 기사문 형식으로 정리하고 <박씨전>의 인물, 사건, 배경을 생각하면서 이 작품에 드러난 문학의 특질을 설명하는 활동, <박씨전>의 작가가 소설을 역사적 사실과 다르게 쓴 이유를 생각해 보는 활동을 제시하고 있다. 이는 ‘읽기 전 활동’에서 정리한 병자호란에 대한 지식을 참고로 하여 역사적 사건과 다른 부분을 찾는 활동으로 ‘읽기 전 활동’과의 연관성도 긴밀할 뿐 아니라 소설을 읽은 후 내용을 정리할 수 있는 적절한 문항이다.

‘학습 후 활동’은 내용 · 목표 · 적용학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분석기준⑤) '내용학습'은 학습자를 고려한 흥미로운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목표학습'에서는 두 문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모두 대단원의 첫 번째 학습 목표를 달성하기에는 적절하지만 두 번째 학습목표인 ‘고전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할 수 있다.’를 고려한 활동을 제시하지 않아 '목표학습'의 원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 또한 두 번째 학습목표는 '적용학습'에서 가장 그 취지를 적절하게 드러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단원에서 '적용학습'을 제시하고 있지 않은 점도 아쉬운 부분이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단원 구성요소의 통일성과 연계성(분석기준⑥)을 살펴보면 이 단원의 가장 큰 문제점은 전 단원을 걸쳐 두 번째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이나 활동을 찾기 힘들었다는 점이다. 고전 문학의 감상이라는 대단원을 통해 학습자의 사회적, 문화적 체험을 유도하고자 했던 단원의 설정 취지 및 목표는 한국 고전 문학의 개념과 특질을 알고 이를 바탕으로 한 고전 문학의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글로 표현하는 것이다. 이 같은 문제점으로 인해 이 단원에서는 구성요소간의 긴밀성과 연계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된다.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9학년 소설단원의 '학습활동'의 문제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단원의 학습목표가 '학습활동'과 괴리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다. <원미동 사람들>에서는 학습목표 중 하나가 단원의 설정 취지 및 소단원의 내용, 교육과정의 내용에 비추어 전체적으로 내용상 괴리되어 있었다. 그리하여 '목표학습'에서 이를 바탕으로 제시된 문항 역시 활동 간의 흐름에 있어서 연계성을 찾기 힘들었다. <운수 좋은 날>과 <박씨전>에서는 두 가지의 학습목표 중 전체적인 활동이 하나의 학습목표를 달성하는데 치중하고 있어서 학습자가 활동을 통해 자신이 인지해야 할 목표를 파악하기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었다.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목적 있는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학습자는 학습목표를 통해 앞으로 배울 내용을 짐작하고 또 단원을 통해 자신이 습득해야 할 목표를 인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습활동'은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활동'의 전체 내용과 그중에서도 '목표학습'은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방식과 활동을 학생에게 맞출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학습'의 지속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적용학습'은 단원의 성격에 따라 들어있는 단원도 있고 없는 단원도 있다. ‘적용학습’은 지금까지 공부한 내용을 다른 제재나 상황에 적용해 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다. 대체로 ‘목표학습’에 대한 적용이 주류를 이루게 된다. 앞에서 분석한 세 소설 중 <운수 좋은 날>과 <박씨전>에는 '적용학습'이 구성되어 있지 않다. 하지만 분석을 해 본 결과, ‘한국 현대 문학에 대하여 관심과 애정을 가진다.’와 ‘고전 문학 작품을 읽고, 자신의 생각과 느낌을 그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학습목표를 살펴보았을 때 이러한 목표를 학습자의 실제적

인 활동으로 이끌어낼 '적용학습'의 구성이 다른 어떤 단원보다 필요하다고 판단되었다. 또한 이 단원뿐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단원에서 '적용학습'의 지속적인 구성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7차 교육과정의 국어과의 교육목표와 교과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을 살펴봤을 때, 언어와 문학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국어 사용상황에서 활용되어야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셋째, '목표학습'의 문항의 배열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원미동 사람들>의 '목표학습'에서는 4문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1,3,4의 문항은 대단원의 두 번째 학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내용인데 반해 2번의 문항이 갑작스레 첫 번째 학습목표를 따름으로써 문제 이해의 흐름이 단절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대단원에는 크게 2~3개의 학습목표가 제시되고 이를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활동이 학습 후 활동 내의 '목표학습'인데 모든 '목표학습'에서 학습목표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의 자연스러운 이해와 흐름을 배려하고 학습자 스스로 단원을 마치면서 '목표학습'을 통해 자신이 단원을 통해 알아야 할 목표를 잘 인지하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구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학습'의 문항을 학습목표에 맞추어 나누고, 그 안에서 문항을 배열한다면 학생들이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인지하면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보충 · 심화' 활동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이다. 학습자의 수준이 학습자의 수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국가에서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이다. 또한 앞의 세 단원을 분석하면서 '보충 · 심화'의 내용이 '학습 후 활동'의 '적용학습'에 더욱 부합하는 문항도 찾을 수 있었다. 실제 교육현장에 있어서도 실제 학습자의 수준을 보충, 심화로 구분 짓기 힘들 뿐만 아니라 '보충 ·심화' 활동을 하면서 일어나는 학습자

의 의문이나 학습실패를 극복할 방안이 없다는 점에서 '보충 · 심화' 활동의 적절성에 대하여 고민할 필요가 있다.

이와 같이 문항분석을 통해 발견한 문제점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다음 장에서 '학습활동'의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하도록 하겠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Ⅳ. '학습활동'의 개선 방안

1.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시안 검토[50)]

교육인적 자원부 고시 제 2007-79호에 따른 중학교 교육과정 해설이 교육과학 기술부의 주관 아래 고시되었다. 2007년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의 개정 배경은 다음과 같다.

(1) '수준별 교육과정'에서 '수준별 수업'으로 전환

제 7차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이 수준별 교육과정을 중심으로 운영되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수준별 교육 내용을 별도로 제시하지 않고, 모든 학습자가 공통으로 학습해야 할 공통 교육내용만을 제시함으로써 수준별 교육내용의 선정, 수준별 교수·학습 방법의 적용을 국가수준에서 학교 및 교사 수준으로 위임하고 있다.

(2) 언어 환경의 변화

현대 한국 사회가 정보화·다매체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정보·지식의 습득과 문화생활은 물론 일상적 의사소통에 있어서도 인터넷을 비롯한 다양한 매체의 사용과 영향이 급격히 증대되었다. 국어 교육에서 매체의 수용 역시 교수·학습 활동에서 매체를 활용하는 차원을 넘어서야 한다. 즉, 다양한 매체를 통해 이루어지는 의사소통의 특성을 이해하도록 하고, 매체 담화·글의 비판적 수용과 창의적 생산 능력

50) 교육과학 기술부가 고시한 『2007 개정 교육과정』에 바탕을 둠.

신장을 국어 교육의 중요한 목표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3) 제 7차 국어과 교육과정의 내적 문제 개선

(가) 개별적이고 단편적인 내용 요소 중심의 교육 내용 선정

(나) 실제와 내용 간, 내용간의 분절성

(다) 담화와 글의 수용, 생상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에 대한 관심 부족

(라)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 부족

(마) 교육과정에 대한 정확하고 원활한 소통을 돕는 정보의 부족

7차 교육과정이 안고 있는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국어과 교육과정 개정의 중점을 다음과 같이 정리 할 수 있다.

(1)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 중심의 국어 교육 지향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개별적 · 독립적 · 탈 맥락적인 지식, 기능의 학습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학습자의 국어 능력이 신장된다고 보고, 교육 내용을 '실제'범주를 중심으로 구성하였다.

(2) 실제와 내용 요소간의 관련성, 내용 교소 간의 통합성 강조

담화와 글을 사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에 해당하는 '실제'범주를 1차 조직자로, 담화와 글을 생산하고 수용하는 활동에서 요구되는 '내용 요소'를 2차 조직자로 설정하여 이들 사이의 관련성을 강화하였다. 한편, 내용 요소 간의 통합과 교섭이 가능하도록 하여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를 중심에 놓았다. 구체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다양한 지식, 기능, 맥락이 서로 통합되고 교섭

할 수 있도록 하였다.

(3) 학교 수준에서의 수준별 교육 지향

학습자의 다양한 수준 차이를 가장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는 주체는 학습자와 지속적으로 상호 작용을 하는 교사라고 판단하여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기본】과【심화】로 구분하여 제시한 '수준별 학습 활동의 예'를 삭제한다. 이로 인해 학교 단위, 교사 단위의 자율적이고 효과적인 수준별 학습을 의도하고자 한다.

(4) 담화와 글의 생산, 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의 강조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요소 선정 범주에 지식, 기능 외에 맥락 범주를 새롭게 선정하였다. 이를 통해 학습자가 자신의 언어 행위의 정확성, 적절성, 윤리성 등을 다양한 맥락 속에서 성찰할 수 있도록 하였다.

(5)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 강화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교육내용의 학년 간, 학교 급간의 수직적 위계성, 학년 내의 수평적 관련성에 근거하여 분석하여 수정·보완함으로써 연계성을 강화하고자 하였다. 특히, 학년 내 영역 간의 연계성을 담화와 글 차원에서 강화하고자 하였다.

(6) 다양한 정보 제공을 통한 소통성의 강화

개정 국어과 교육과정은 국어 수업을 통해서 학습자가 도달해야 할 성취 기준을 중심으로 교육 내용을 선정하고, 배열하였으며, 이러한 성취기준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설정한 ‘담화(또는 글, 언어 자료, 작품)의 수준과 범위’, ‘내용 요소의 예’ 항목이 여기에 해당한다.

(7) 언어 환경의 변화에 따른 ‘매체’ 관련 내용의 확대

다매체 시대로 일컬어지는 언어 환경의 변화는 국어과뿐만 아니라 많은 교과의 교육 내용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국어과에서 매체 담화· 글의 수용과 생산을 국어과의 주요 교육 내용으로 다루는 것은 당연하다.

이 같은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은 앞으로 새롭게 편찬 될 교과서뿐만 아니라 교과서 내의 ‘실제’부분을 담당할 '학습활동' 역시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2. 문항 분석 및 개정 교육과정 고찰을 통한 ‘학습활동’의 개선방안

이 장에서 다룰 '학습활동'의 개선방안은 앞 장에서 다루었던 9학년 교과 소설단원의 '학습활동'의 문항분석과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중심내용을 바탕으로 한다.

첫째, '학습활동' 및 단원의 내적 구성요소는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충실히 반영해야 한다. 대단원의 학습목표는 교육과정의 내용을 통해 만들어지고 단원의 설정취지 및 제재 선택에 바탕이 된다. 특히 '학습활동'에는 이

같은 점이 정확하게 드러나야 하는데 그 이유는 학생들이 목적 있는 학습을 해야 하기 때문이다. 학습자는 학습목표를 통해 앞으로 배울 내용을 짐작하고 또 활동을 통해 자신이 습득해야 할 목표를 인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습활동'은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학습활동'의 전체 내용과 그 중에서도 '목표학습'은 단원에서 제시하고 있는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충실하게 반영하고 그 의미를 충분히 살려 학생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진술방식과 활동을 학생에게 제시할 필요가 있다.

둘째, '적용학습'의 지속적인 구성되어야 한다. 이는 특히 앞의 개정 교육과정에서도 그 타당성을 찾을 수가 있다.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실제'를 중심에 놓음으로서, 구체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 속에서 다양한 지식, 기능. 맥락이 서로 통합되고 교섭할 수 있도록 함을 밝히고 있다. 또한 담화와 글의 생산, 수용 활동에 작용하는 맥락을 강조하고 있다. 새롭게 편찬되는 교과서에서 '학습활동'의 명칭이 변화될 수는 있겠지만 현재 교과서의 내적 구성 요소 중에서 이러한 개정 교육과정의 성격을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것이 '적용학습'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교과서에서는 단원의 성격에 따라 들어있는 단원도 있고 없는 단원도 있다. 그러나 7차 교육과정 및 개정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밝히고 있는 것이 언어와 문학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국어 사용상황에서 활용되어야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는 것임을 고려할 때 이는 꼭 필요한 부분이다.

셋째, '목표학습'의 문항의 배열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대단원에는 크게 2~3개의 학습목표가 제시되고 이를 가장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활동이 '학습후 활동' 내의 '목표학습'인데, 모든 '목표학습'의 문항 배열에 있어 학습목표에 따른 구분을 하지 않는 구성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내용을 자연스럽게 이해하고 그 흐름을 파악하여 학습자 스스로 단원을 마치면서 '목표학습'을 통

해 자신이 단원을 통해 알아야 할 목표를 잘 인지하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구성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고 여겨진다. 즉 이러한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목표학습'의 문항을 학습목표에 맞추어 나누고, 그 안에서 문항을 배열한다면 학생들이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인지하면서 '학습활동'을 할 수 있고 문제를 이해하고 해결하는데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넷째, '학습활동'에 있어서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앞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독서와 사회'단원과 '한국 현대 문학의 이해'단원에서는 각기 독서를 통한 사회·문화의 만남이과 한국 현대 문학의 흐름에 대한 설명문을 제공한 후 문학작품 감상을 하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전 학년에 배웠던 소설을 통해 문학 작품에 드러나고 있는 사회와 삶의 소통관계를 생각해 보는 활동, 그 동안 배웠던 문학작품이 문학사의 흐름에서 어디쯤에 위치하며,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해 생각해 보는 활동 등이 필요하다고 밝힌 바 있다. 이는 개정교육과정에서 밝히고 있는 '교육 내용의 타당성, 적정성, 연계성 강화'와도 맥이 닿아 있는 부분이다. '학습활동'이 학습 경험의 연속성을 유지하고 영역간의 연계성을 통합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구성될 필요가 있다.

다섯 째, 언어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다매체적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또한 소통성의 강화를 고려함이기도 하다. 이러한 부분은 개정 교육과정에서 가장 중점을 두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다. 나날이 발전하고 있는 정보와 매체의 발전으로 인해 정보·지식의 습득과 문화생활, 의사소통에 있어 매체의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 없이 중요해졌다. 신문, 잡지, 텔레비전, 라디오, 영화, 인터넷, 휴대전화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정보·지식·문화의 수용·생산에 대해 이해하는 활동이 필요해졌으며 이를 이용한 국어학습도 필요하게 되었다. 앞의 장에서 소설 제재를 분석하면서 <박씨

전>은 병자호란에 관한 짧고 단편적인 역사적 지식을 제공하고 있었다. 이와 관련해 ‘읽기 전 활동’에서 학습자의 흥미와 사회의 변화를 고려해 매체를 통해 학습자 스스로 역사적 지식을 찾아보게 하거나 영역통합적인 차원에서 국사교과서를 찾아 학습자의 흥미유발과 배경지식 활성화를 고려하는 활동을 언급한 적이 있다. 이와 같이 매체를 이용한 '학습활동'은 특히 영상세대인 학습자를 고려한 동기유발이나 흥미유발을 위한 ‘읽기 전 활동’에 적합할 것이다. 또한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담화와 글의 수용, 생산이 중요시되기 때문에 ‘학습 후 활동’에서 다양한 창작활동 뒤 학습을 둘러싼 주체간의 정확하고 다양한 의사소통을 하는데 있어서도 효율적일 것이라 판단된다.

여섯째, 담화와 글의 생산, 수용활동을 강조하는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이는 '적용학습'의 활성화와도 연관 있는 부분이지만 '적용학습'보다 넓은 의미에서 실제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활동이 필요하다. 개정교육과정에서는 개별적, 독립적, 탈 맥락적인 지식, 기능의 학습보다는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담화와 글을 수용하고 생산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즉 학습자가 국어수업을 통하여 도달해야 할 ‘성취기준’을 이에 두고 있는 것이다. 단원 별 설정취지와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앞에서 분석의 대상이 되었던 소설들은 이러한 부분이 특히 강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학습활동'에서 제시되지 않아 문제점으로 지적된 바 있다. 매 단원마다 담화와 글을 생산하고 평가하는 것은 말처럼 쉽지 않겠지만 학습 주체자들 간의 매체를 이용한 소통과 협력이 있다면 어렵지 않을 것이라 판단된다.

앞에서 제시했던 '보충 · 심화' 활동의 적절성문제는 개정 교육과정에서 새롭게 개선된 바가 있으므로 앞으로 편찬 될 교과서에서는 이러한 부분이 적용될 것이라 여겨진다.

Ⅴ. 결론

지금까지 2001년부터 시행된 제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3학년에 수록된 소설 제재를 대상으로 '학습활동'의 내용을 분석, 평가하고 '학습활동'의 문항들이 교육과정 및 학습목표를 바탕으로 얼마나 적합하게 구성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지금까지 논의해 온 내용을 간단하게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제Ⅰ장 서론에서는 '학습 활동'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선행연구 검토, 연구대상 및 방법에 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본론이 시작되는 제 Ⅱ장에서는 '학습활동' 분석하기에 앞서 분석의 기저가 되는 제 7차 교육과정 소설교육의 목표와 성격에 대해 알아보았다. 또한 분석의 대상이 될 교과서의 구성 및 소설단원의 지도내용 개괄하여 소설단원의 내용구성과 활동의 성격에 대해 살펴보았다.

제 Ⅲ장에서는 본격적으로 중학교 교과서 소설단원의 '학습활동'을 살펴보았다. 먼저 '학습활동'의 성격과 구성을 알아보았다. 그 후 9학년의 3개 작품(<원미동 사람들>, <운수 좋은 날>, <박씨전>)을 대상으로 여섯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문항을 분석하고 이에 따른 결과를 정리하였다. 분석의 바탕이 된 여섯 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국어과 성격 및 교육목표
(2) 국어 교과서의 기본 방향

(3) 대단원의 학습목표

(4) 학습 전-중-후 활동의 적절성

(5) 학습 후 활동 내 내용·목표·적용학습의 적절성

(6) 단원 구성요소의 통일성과 연계성

<보기 26> 문항 분석의 기준

위의 내용을 바탕으로 하여 '학습활동' 문항을 분석한 결과, 9학년 소설단원 '학습활동'의 문제점을 다음 4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

첫째, 대단원의 학습목표가 '학습활동'과 괴리되거나 누락된 경우가 있다. 학습목표를 제시하는 것은 학생들이 명확한 목적의식을 지닌 채 '학습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학습자는 학습목표를 통해 앞으로 배울 내용을 짐작하고 또 단원을 통해 자신이 습득해야 할 목표를 인지하게 된다는 점에서 '학습활동'은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잘 반영하고 있어야 한다.

둘째, '적용학습'의 지속적인 구성이 필요하다. 7차 교육과정 국어과의 교육목표와 교과서 편찬의 기본 방향을 살펴봤을 때, 언어와 문학에 대한 지식은 다양한 국어 사용상황에서 활용되어야 더욱 큰 의미를 지닌다.

셋째, '목표학습'의 문항 배열을 개선이 필요하다. 학습 내용이 자연스럽게 이해대고 그 흐름을 파악하여 학습자 스스로 단원을 마치면서 '목표학습'을 통해 자신이 단원을 통해 알아야 할 목표를 잘 인지하고 이를 잘 수행할 수 있도록 내용이 구성되어야 한다.

넷째, '보충 · 심화' 활동의 적절성에 관한 문제이다. 학습자의 수준이 학습자의 수만큼 다양한 상황에서, 학습자의 수준을 국가에서 몇 가지로 규정하고 있는 것이 과연 타당한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했다.

Ⅳ장에서는 Ⅲ장에서 문항분석을 통해 제시한 문제점과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의 검토를 통해 '학습활동'의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그 내용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습활동'및 단원의 내적 구성요소는 대단원의 학습목표를 충실히 반영해야한다.
둘째, '적용학습'의 지속적인 구성되어야 한다.
셋째, '목표학습'의 문항의 배열에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
넷째, '학습활동'에 있어서 교육 내용의 연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
다섯 째, 언어 환경 변화에 따른 사회의 변화와 학습자의 흥미를 고려한 다매체적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여섯째, 담화와 글의 생산, 수용활동을 강조하는 '학습활동'이 필요하다.

본고는 7차 교육과정 핵심 목표를 교과서의 구성요소 중 '학습활동' 이 가장 잘 반영하고 있다는 생각 아래, 9학년 소설의 '학습활동'의 문항을 분석하였다. '학습활동'의 문항 분석을 조금 더 자세히 하기 위해 '학습활동'에 있어서 교육의 상위요소인 여섯 가지 기준을 적용하여 문항을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해 얻게 된 결과와 『2007개정 교육과정』을 바탕으로 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최종적인 목적으로 하는 본문이지만, 여러 가지 점에서 부족한 면이 있다.
분석의 대상이 9학년의 3개 단원으로 한정되어 있어 학년과 영역을 아우르는 분석을 하지 못했다. 자료수집에 있어서도 부족한 부분이 있다. 또한 현장교사와 학생들의 설문 등을 통해 '학습활동'이 교육현장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등을 파악했다면 다양하고 심층적인 논의가 있을 수 있었을 것이다.

'학습활동'은 여러 가지 문제점과 개선의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생각을 요구하고 질문하는 활동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점, 학생들이 다양한 언어 경험을 할 수 있는 활동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점에서 '창의적

국어사용 능력 향상'이라는 국어 교육의 목표를 잘 드러낸 교과서의 구성 요소임에는 틀림없었다.

2007년 2월 개정, 고시된 교육과정이 순차적으로 국어과 교육과정에 적용되고 이를 반영한 새로운 교과서의 출판도 멀지 않았다. 여러 가지로 부족한 점이 많지만 학습자를 위한 국어교육과 활동이 가져야 할 성격과 기준에 대해서 고민하고 분석했던 본고의 작업이 앞으로 시행될 개정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편찬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PUKYONG NATIONAL UNIVERSITY
부경대학교

※참고 문헌(서적 및 논문)

1. 단행본

선주원,『소설 교육의 원리와 방법』, 새미, 2003.

김은전,「국어교육과 문학교육』,『사대논총』 제 19집, 1979.

구인환,『문학교육론』, 삼지원, 2000.

김대행,『문학이란 무엇인가』, 문학과 사상사, 1992.

김윤식,『한국 근대문학과 문학교육』, 을유문고, 1984.

김인환,『문학교육』, 평민서림, 1979.

김상욱,『소설교육의 방법연구』, 서울대학교 출판부 , 2004.

선주원,『소설교육의 원리와 방법』, 새미, 2005.

이상우,『소설방법론을 통한 소설교육』, 집문당, 1999.

김미영,『문학교육과 현대소설』, 깊은 샘, 2005.

구인환 외, 『문학 교육론』, 삼지원, 1988.

최병해·마운용 편저 ,『문학 및 문학 교육』, 들풀, 2007.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교과서 3-1』,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교과서 3-2』, 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교육인적자원부,『제7차 고등학교교육과정해설-국어』,대한교과서주식회사, 1999.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지도서 1-1』,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1.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지도서 2-1』,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2.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지도서 3-1』,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교육인적자원부 ,『중학교 국어과 교사용지도서 3-2』,대한교과서주식회사, 2003.

2. 학술지 및 논문

박애련 ,「영상매체를 활용한 소설교육연구」, 고려대 석사 학위논문, 2006.

김덕희 ,「영상매체 활용수업이 소설 감상 능력 및 태도에 미치는 영향」, 강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3.

유지연 ,「매체를 이용한 소설교수방법 연구」, 청주대 석사 학위논문, 2003.

조은희 ,「문학교육의 매체활용방법연구」, 공주대 석사 학위논문, 2002.

구양희 ,「국어과 교육에서의 인터넷 매체활용방법연구」, 이화여대 석사 학위논문, 2002.

손소희 ,「중학교 소설교육의 실태에 관한 연구」, 이화여대 석사 학위논문 , 1985.

이순자 ,「소설교육의 실제와 문제점」, 고려대 석사 학위논문, 1986.

예주연 ,「중학교 소설 교육의 실태와 올바른 시조방안 」, 이화여대 석사 학위논문, 1997.

홍성룡 ,「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설 단원의 분석과 평가」, 부산대 석사 학위논문, 2002.

안혜정 ,「중학생을 대상으로 한 소설의 교수·학습 방법 연구」, 아주대 석사 학위논문, 2002.

이숙형 ,「중학교 국어교과서 소설 분석」,고려대 석사 학위논문, 2000.

김정수 ,「중학교 국어 교과서에 실린 소설의 '학습활동' 분석」 , 상명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 2002.

신용옥 ,「제 7차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 제재 '학습활동' 분석」, 상명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3.

손인규 ,「중학교 국어 교과서 소설단원 '학습활동' 분석 」, 경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4.

지현정 ,「중학교 국어 교과서 『문학』 단원 '학습활동'의 분석적 고찰」, 강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2006.